

석사학위논문

캐나다화인화문작가 陳浩泉 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이주자의 모습



최하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2020년 8월

캐나다화인화문작가 陳浩泉 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이주자의 모습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최하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지도 교수 김혜준

최하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23일

위원장

呂曉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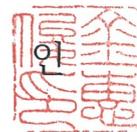
위원

원도경



위원

김혜준



〈목 차〉

한글초록	ii
제1장 陳浩泉 소설 연구의 의미	1
제2장 陳浩泉 캐나다화인화문 소설의 창작 배경	5
제1절 陳浩泉의 생애와 창작	5
제2절 陳浩泉의 화인화문문학 창작관과 활동	8
제3장 작품에 나타난 화인 이주자의 이상과 현실	12
제1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의 이주 동기와 목적	12
제2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의 이주 현실	20
제4장 작품에 나타난 화인 가정의 변화 양상과 초국적 가정의 형성	30
제1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 가정의 변화 양상	30
제2절 작품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의 형성	38
제5장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으로서 陳浩泉 소설의 의의	45
【참고문헌】	51
중문초록	55

캐나다화인화문작가 陳浩泉 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이주자의 모습

최 하 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요약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전 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초국적인 인류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탈영토화된 집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인 집단은 이주자 집단들 중에서도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인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이주 과정에서 겪은 삶의 애환, 정체성 혼란을 다룬 문학에 대한 연구도 함께 증가했다. 나는 초국적 이주자이자 캐나다 화인작가인 천하오취안(陳浩泉)의 소설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이주자들이 이주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주 사회에서 이주자가 겪게 되는 이주 현실, 이주로 인한 화인 가정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천하오취안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와 초국적 가정의 형성을 주목했다.

천하오취안은 부친과 형제가 화교인 집안의 출신으로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홍콩에서 캐나다로 두 차례 이주했다. 그는 홍콩 거주 시절에 이미 창작을 시작했는데, 특히 1992년 캐나다 이주 후 이주자 신분으로 이주 사회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화인 이주자에 관한 작품 창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는 천하오취안 소설에 나타난 1990년대 이후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자와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이주 동기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캐나다 초기 이주자의 모습이 나타난 장링(張翎)의 《골드마운틴(金山)》과 비교했을 때, 초기 이주자는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육체노동 위주의 생계형 이주였다면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개인과 가족의 이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추구형 이주로 이주의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자는 이주에

피동적·수동적이었다면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능동적·주동적인 태도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나타난 화인 이주자 대부분은 이상 추구를 목적으로 이주했다. 소설 속 이주자들 중에는 이주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조롭게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주자가 있는 반면 이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자도 있다. 화인 이주자가 이주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 거주지 변화로 인한 이주자의 정서적 불균형, 경제 여건의 악화, 신분적 불안정, 이주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 가치관 충돌과 동요, 정체성의 혼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화인 이주 가정을 통해 잘 드러난다. 나는 소설 속에 등장한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통해 이주지라는 새로운 환경과 이주 사회의 경제 변화 등 여러 외적 요인이 이주자 개인의 가치관과 정서,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순응하는 등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천하오취안의 소설에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와 초국적 가정이 대거 등장한다. 초국적 가정은 국제 이주의 증가로 가족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의 국민국가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족적 삶을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0년대 이래 이주자의 이주 형태와 이주 동기의 변화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출현을 도왔고 이로 인해 초국적 가정이 형성되었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자는 이주 후 출발지와 왕래 혹은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적었던 반면,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필요에 따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이주지를 경유지로 삼아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 즉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이주 후에도 교통과 통신수단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출발지와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권상의 국적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천하오취안이 소설을 통해 보여준 화인 이주자들은 오늘날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 집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일부다. 캐나다 화인화 문문학으로서 천하오취안의 소설에는 한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체제의 틈새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간 집단과 다양한 삶의 모습, 그들의 의식과 문화가 표현된다. 이들은 출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지의 새로운 문화와 혼합되고 어우러져 새로운 인류 집단,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의 경계와 상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

재력이 크다. 따라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제1장 陳浩泉 소설 연구의 의미

전 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21세기의 현대인은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탈경계의 시대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유목민이 물과 풀을 따라다니며 살았지만 현대인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 주목하는 이론적 시각이다. 바쉬 (Basch et al, 1994) 등은 초국가주의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자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주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국경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장 속에서 다방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구성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자들은 빈번하게 국경을 넘나들며 가족, 경제, 사회, 종교, 정치의 측면에서 다중적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있다.¹⁾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에 관한 연구 주제는 이주자의 이주지 내에서의 적응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많은 이주 연구들은 이주자가 정착하고 있는 국민 국가의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모국의 가족, 공동체, 전통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양상을 띠는 것에 주목한다.²⁾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이주자의 초국가적 양상을 강조하고, 초국적 이주 흐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 또한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의 이주자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통해 초국적 이주자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의 초국적 이동이 확산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탈영토화된 민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화인은 주로 한족 및 한족에 동화되었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한족 문화와 일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히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오늘날의 개념에서 화인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및 한족과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내지는 전통적인 한족 공동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초국적 이주자의 증가는 이주자의 이주 형태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래의 최근 이주자는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

1) 김경학, <피지계 인도인의 초국가적 성격>, 《인도연구》 2-10, 한국인도학회, 2005, pp. 1-42. 재인용.

2) 김경학, <피지계 인도인의 초국가적 성격>, 《인도연구》 2-10, 한국인도학회, 2005, pp. 1-42.

거에는 노동 이주 및 생계형 이주, 혹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망명이나 난민 등의 이유로 이주를 선택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상 추구형 이주, 즉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 자녀 교육,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의 동기와 이주자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라는 이주 형태의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 화인의 역사와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문학 활동과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 중반 이전 캐나다 지역의 초기 이주자는 대체로 육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문학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새로운 이민 정책이 수립되고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홍콩·타이완 등에서 화인 이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화인화문문학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1960년대는 타이완 본성 출신 유학생들이 다량의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기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이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과 1984년부터 1997년까지의 중영연합성명 발표에서 홍콩 반환에 이르기까지의 약 10년은 홍콩 출신 이주자들이 급증한 시기다. 1970년 캐나다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1974년부터는 중국 대륙 출신 이주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8년 중국 대륙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중국 대륙 유학생을 위주로 한 대륙 출신의 화인 이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8년 이후에는 대륙 출신 이주자들이 홍콩 등 타 지역 출신 이주자들을 추월하여 화인 이주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작가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륙 출신 작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출발 지역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 등 유럽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한국인 등 아시아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1-1996년의 기간에 캐나다 밴쿠버 정착한 이주자의 10대 송출 지역 중에서 상위 7개 지역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아시아 국가(또는 지역)이다. 특히 홍콩, 타이완, 중국 대륙 등 세 지역으로부터의 화인 이주자는 밴쿠버에 정착한 전체 이주자의 29.7%에 해당하는 188,45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49.9%가 1991-1996년의 기간에 유입되었다.³⁾ 인구센서스를 통해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이주 추세와 1990년대 이래 화인 이주자

3)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8.12, 144-181쪽.

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캐나다에 정착한 화인 이주자의 규모와 시기별 출신지 및 유입 추세 등을 토대로 시기별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형성과 발전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화문작가의 수 증가, 작품의 출판 증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근거로 추론해 볼 때 2000년대 이후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이 성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화인 이주자는 그들이 이주 과정에서 느낀 애환과 이주자의 현실을 문학 작품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다. 세계 각지의 화인 이주자들이 이를 중국어 내지 한어로 창작한 문학을 화인화문문학⁴⁾이라고 한다. 화인화문문학에는 이주지에서 이주자의 신분으로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이주 생활의 모습 등이 잘 나타난다. 나는 화인화문문학을 통해 이러한 화인 이주자의 삶, 이주 사회의 현실, 이주 가정에서부터 21세기형⁵⁾ 초국적 이주자와 초국적 가정에 이르기까지 고찰의 범위를 확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란 글로벌 시대와 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이상적인 사회와 삶을 꿈꾸며 이동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1990년대 이후 캐나다 화인 집단은 대표적인 21세기형 유목민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작가이자 대표적인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인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의 작품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1990년대 이후 이주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화인 이주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그는 1992년 캐나다 이주 이후 이주를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소재가 변화된 그의 작품을 통해 1990년대 이후의 캐나다 이주 사회를 살아가는 화인 이주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작가 천하오취안의 신분과 살아온 환경이 독특하다. 그는 중국 대륙 출신으로 대륙에서 약 10년 이상 거주한 이후 홍콩으로 이주했고, 홍콩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이후 다시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는 두 차례의 이주 경험을 한 이주자로서 이주 생활의 애환을 직접 보고 겪은 작가로 판단된다. 셋째, 천하오취안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천하오취안 작품의 시대 배경과 이주자로서의 작가 신분, 작품 활동과 경력을 참고하였을 때 그를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더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서술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 77-116. 참고. 이 논문에서는 지도 교수인 김혜준의 논문을 직접 인용한 것과 더불어 그가 구두로 제공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미리 밝힌다. 특히 그는 논문의 주제를 결정하고 체계를 세우는데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5) "21세기형" 이주는 1990년대 이래 이주한 사람까지 포괄하는 의미이자, 과거의 이주자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임.

다.

본고에서는 천하오취안의 소설을 통해 20세기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화인의 캐나다 이주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캐나다에서 화인들이 겪는 이주 현실과 고뇌는 무엇인지, 이주로 인한 거주지의 변화가 화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주로 인한 이주자의 가치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나타난 화인 이주자의 모습과 이주 가정의 모습을 바탕으로 초국적 사회로 변화된 이주 사회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이주 가정의 모습 및 초국적 가정의 탄생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천하오취안은 지금까지 약 30여 종의 작품집을 출판했다. 나는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천하오취안이 캐나다 이주 후 발표한 작품 중 21세기의 이주자의 삶을 보여주고 그의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판단되는 장편소설 《에덴동산을 찾아서(尋找伊甸園)》와 단편소설 〈빌린 아내(租妻記)〉, 〈상씨의 성명학(向家的姓名學)〉, 〈일평생의 행운(一生好運)〉, 〈새장 안의 화미조(籠子裏的畫眉)〉, 〈스쳐가는 인연(霧水情緣)〉, 〈햇빛과 꽃모종(陽光與花苗)〉, 〈안녕 왕자(再見王子)〉, 〈양귀비(罌粟花)〉, 〈늙었지만 늙지 못한(吾老, 不被「老」)〉,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 〈나는 너를 보았다(I saw you)〉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외 그의 산문 《벤쿠버에 있는 집(家在溫哥華)》, 《샘소리(泉音)》 및 여타 작가의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작품을 참고로 활용할 것이다.

제2장 陳浩泉 캐나다화인화문 소설의 창작 배경

제1절 陳浩泉의 생애와 창작

천하오취안은 부친과 형제가 필리핀화교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12살 때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생계를 꾸렸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천하오취안의 아버지는 중국 대륙에서 가정을 꾸렸고 천하오취안은 1949년 중국 푸젠성(福建省) 난안시(南安市)에서 태어났다.

천하오취안은 어린 시절 종종 해외에 나가 계셨던 아버지와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 자주 편지를 썼다고 한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일기장이 매년 한 권씩 쌓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고 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천하오취안은 중국 대륙에서 13년을 거주하고 1962년에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했다. 홍콩 이주 후 중학교시절부터 신문에 글을 써 투고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교생활통신을 쓰다가 나중에는 산문, 시, 소설까지 쓰게 되었다. 특히 그에게 있어 글쓰기는 중단해서는 안 되고 중단하게 된다면 다시 쓰기 어려워지는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글쓰기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가 후일 소설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게 된 데는 이러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⁶⁾

천하오취안은 마카오의 동야(東亞)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사회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홍콩에서 기자, 일간지 편집인, TV 방송국 작가, 출판사 및 잡지사 등에 일하면서 꾸준히 글을 썼다. 그는 계속해서 일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였고 1973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천하오취안은 홍콩에서 30년을 생활을 한 후 1992년에 캐나다로 이주를 선택했다. 그가 캐나다 이주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개인적으로는 자녀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1997년의 홍콩반환이후 불투명한 홍콩의 전망 때문이었다.

홍콩에서 30년이라는 짧지 않았던 세월은 천하오취안의 인생에서 황금기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홍콩에서 학업을 했고 직장생활을 했으며 작품 창작

6) 제2장은 陳浩泉에 관련한 아래의 두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서술함.

青洋, 〈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 《香港文學》 第328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2.4, pp. 12-18.

趙慶慶, 〈泉音潺湲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 《文學評論》 第57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2018.11, pp. 86-94.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홍콩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처럼 홍콩에서 보낸 시절은 그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 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홍콩은 캐나다로 오기 전의 경유지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는 홍콩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홍콩에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캐나다 밴쿠버에 새로운 문화 기업을 설립하고 홍콩의 출판사와 함께 경영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홍콩에서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하고 출판하며 여전히 홍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친구와 친척이 홍콩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주 후에도 꾸준히 홍콩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며 홍콩과 캐나다를 왕래하고 있다.⁷⁾

1992년 캐나다 이주 이후 천하오취안은 캐나다 이주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이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캐나다의 사회 상황이다. 천하오취안이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이미지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또한 캐나다는 문명적이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다르고 그사이에서 문화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나다 이주로 큰 문화 차이를 느낀다고 하지만 그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홍콩의 사회 제도가 캐나다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홍콩은 본래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어 영국 연방이었고 캐나다 또한 영국 연방이었기 때문에 법과 풍습에 있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행한 덕분에 서로 다른 종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인종차별 문제도 호주, 미국, 유럽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제도 덕분에 천하오취안에게 캐나다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느껴졌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여기게 되었다. 혹자는 캐나다 이주 생활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가 3주 만에 캐나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⁸⁾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천하오취안의 출신 가정과 잦은 이주 경험 때문이다. 천하오취안은 부친과 형제가 화교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조부는 십 대부터 외국에서 생활했다. 그의 아버지와 숙부는 모두 해외에서 태어났다. 부친과 형제가 화교인 집안에서 성장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보면서 천하오취안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신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에게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캐나다로 이주한 것 또한 태평양의 저쪽에서 태평

7) 최하경과 陳浩泉의 이메일(2019.12.03.)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술임.

8) 有些人來了感到不適應，我覺得很奇怪，我三個星期就適應了。(青洋，〈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香港文學》第328期，香港：香港文學出版社，2012.4，pp. 12-18.)

양의 이쪽으로 이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민"이 그에게는 그저 바다를 건너 "이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⁹⁾ 그만큼 천하오취안은 이주나 낯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하오취안은 이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숙명으로 여긴다. 또한 성격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좋은 기회와 생활환경이 사람의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이주의 경험은 천하오취안 자신을 비교적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작품 창작은 물론 직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천하오취안은 향후 재이주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시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¹⁰⁾ 예측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이주가 유배지로 보내지는 것처럼 비극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천하오취안은 본인의 의사로 이주를 선택했다. 그에게 이주란 바다를 건너 장거리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이주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줄곧 이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¹¹⁾

천하오취안은 대중 매체의 업무와 문학 창작을 병행하면서 화문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1960년대에 홍콩청년문예애호자협회(香港青年文藝愛好者協會)를 설립하고, 1980년대에 홍콩작가연합회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1992년 캐나다 이주 후에는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拿大華裔作家協會)¹²⁾에 참여해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9기의 회장을 역임하고 18년간 활동하면서 다수의 출판 및 문학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으며 국내외 문학 교류 촉진 등 다양한 방면에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전 홍콩작가연합이사장, 중국작가협회 회원으로 캐나다화예작가협회 부회장과 회장, 세계화문문학연합 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화한문화사업공사(華漢文化事業公司)와 웨이방문화기업공사(維邦文化企業公司)의 이사장이자 편집장이다.

9) 在我的心態裏，從一個地方搬遷到另一個地方很平常，有什麼值得大驚小怪，感覺就是搬個家，從太平洋的那邊搬到太平洋的這邊而已。人家說移民，我說是越洋搬家。(青洋，〈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香港文學》第328期，香港：香港文學出版社，2012.4，pp. 12-18.)

10) 由於出身於華僑家庭，到我這一輩，可以說已經是第三代的海外華人了，遷徙對我們來說，幾乎就是一種宿命。性格決定人的命運，但相對地，人生際遇、生活環境也會影響人的個性。個人的人生歷程中，不斷的遷移形成了自己比較開放的性格、胸懷，較高的適應能力，以及較佳的人際關係，這對自己的事業是有幫助的，無論是對寫作還是所從事的工作，均有裨益。以後是否還會遷移？那誰也說不准，一切得視乎當時的環境與需要，才能做出正確的決定。(趙慶慶，〈泉音潺潺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文學評論》第57期，北京：中國社會科學院，2018.11，pp. 86-94.)

11) 최하경과 陳浩泉의 이메일(2019.12.03.)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12)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拿大華裔作家協會)는 1988년 캐나다 밴쿠버에 캐나다화예작가인협회(加拿大華裔寫作人協會) (Chinese Canadian Writers' Association) 명칭으로 정식 설립되었다. 창립회장은 루인(盧因), 부회장은 량리팡(梁麗芳)이다. 1990년대 초 캐나다화예작가협회로 협회 명칭을 바꾸었으며 영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화예작가협회는 캐나다화인작가의 작품 창작과 연구를 추진하고 캐나다화인작가와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2절 陳浩泉의 화인화문문학 창작관과 활동

1973년부터 홍콩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천하오취안은 홍콩인으로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인 홍콩의 어두운 면을 작품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 광인(香港狂人)》, 《홍콩 아가씨(香港小姐)》, 《홍콩97(香港九七)》을 들 수 있다. 그는 주로 홍콩 반환 이전의 홍콩인의 심리 상태와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 홍콩인의 삶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했다. 하지만 1992년 캐나다 이주 이후 그의 창작 경향은 변화했다. 이주로 인한 거주지의 변화, 이주자 신분으로 마주한 이주지 캐나다의 삶과 현실, 문화적 차이 등은 천하오취안이 작품 창작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캐나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천하오취안에게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글을 쓰는 사람, 문화인으로서 이주는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주로 인해 신분의 정체성, 심리적 변화, 사고의 변화, 시각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스스로 인식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누적과 더불어 익숙해졌다. 천하오취안은 글을 쓰는 사람,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건과 사고를 작품창작의 주요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¹³⁾

캐나다 이주로 인해 그의 문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 후 천하오취안의 작품 창작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작품 소재와 스타일에서 드러난다. 먼저, 천하오취안은 오랜 기간 홍콩에서 창작하던 당시 삼아온 소재를 이주지에서도 계속 활용하면서 캐나다에서 접한 새로운 사람과 사물, 새로운 감상과 견문을 작품 창작에 함께 접목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이주로 인해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 이주 후 거주지의 변화로 시야가 변화됨에 따라 사상이 변화했고 자연스럽게 홍콩과 캐나다의 두 문화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주의 경험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주로 인해 자연스레 시야가 넓어지고 사물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천하오취안은 이주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누적과 공간 전환이라고 말한다. 창작 초기 작품에서 홍콩에 관한 소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주로 공간이 변화한 뒤 시간이 누적될수록 사고도 자연스럽게 뚜렷해졌고, 이러한 변화는 그는 글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¹⁴⁾

천하오취안은 작품 창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생각을 정리하며 문제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작품 창작을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13) 趙慶慶, 〈泉音潺湲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 《文學評論》第57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 2018.11, pp. 86-94.

14) 青洋, 〈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 《香港文學》第328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2.4, pp. 12-18. 참고.

성장하는 과정이자 자신의 인생을 실천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천하오취안은 캐나다 화인 이주자이자 문화인으로서 화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그는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작품을 창작한다.¹⁵⁾ 그는 캐나다 이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이주 생활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하오취안은 작품을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이주자의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천하오취안은 소설을 통해 화인 이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실제 생활을 완벽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설 속 사회배경과 인물은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일 수는 없다. 그는 소설을 허구와 실제의 혼합체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 등장인물은 이주 생활에서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사건은 이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정할 수 없기에 소설인 것이다.¹⁶⁾

내가 보기에 화인 이주자로서 천하오취안이 화인화문문학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어린 시절부터 겪은 이주 경험은 그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천하오취안은 화교 가정 출신으로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해외에서 이주자의 신분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부모님의 잦은 거주지 이동과 해외 이주는 스스로가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자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천하오취안은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위단(餘丹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등, 자신의 이주자로서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주자의 삶을 탐구하고 작품 창작으로 연결시켜 나갔다.

둘째, 1984년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 연합 성명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홍콩에서 홍콩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한다.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홍콩인들이 안정된 국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주를 선택했다. 천하오취안 스스로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주를 결심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가 이주를 선택하게 된 데는 위와 같은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뒤 그는 이주자인

15) 趙慶慶, 〈泉音潺湲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 《文學評論》第57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 2018.11, pp. 86-94.

16) 青洋, 〈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 《香港文學》第328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2.4, pp. 12-18. 참고.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화인 이주자의 새로운 정체성 혹은 혼종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작품을 통해 출발지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캐나다 이주 이후에 생겨난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문제와 이주자의 정서적 변화, 가치관 충돌과 동요를 보여준다. 이주자의 신분으로 이주지인 캐나다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신분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천하오취안은 〈양귀비〉를 통해 중국 대륙과 캐나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화인 이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중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화인 이주자가 서양사회에서 겪게 되는 가치관 충돌과 동요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일평생의 행운〉, 〈상씨의 성명학〉, 〈안녕 왕자〉와 같은 소설이 이에 속한다.

셋째,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이주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천하오취안은 이주자 신분의 문화인으로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화인화문문학에 주력하고 있다.¹⁷⁾ 천하오취안은 화인 이주자가 맞이한 이주 현실에서 그들이 겪게 된 현실과 이상이라든가 이주자가 이주 현실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예컨대 〈새장 안의 화미조〉, 〈빌린 아내〉와 같은 소설이 그러하다.

넷째, 천하오취안은 리얼리즘적 창작관과 비판적 사고로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천하오취안은 이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을 소설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그는 이주 사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에덴동산을 찾아서》를 통해 이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상당수가 이주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이주자들의 잘못된 이주 가치관과 이주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비판한다.

천하오취안은 캐나다 이주 전 루인(盧因)¹⁸⁾의 권유로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拿大華裔作家協會)에 해외회원 자격으로 가입하게 된다. 1992년 캐나다 이주 이후 이사회에 들어가 네 차례 회장직을 맡으며 지금까지 협회 활동에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협회를 통해 강좌 개설, 대외 교류, 서적과 정기간행물 출판 등 많은 활동을 주도했다. 캐나다화예작가협회는 약 25년 동안 중국 대륙 작가와의 교류를 포함하여 캐나다와 중국 대륙 두 지역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홍콩의 《홍콩문학(香港文學)》, 《명보(明報)》 캐나다의 《도시보(都市報)》, 《화보(華報)》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에

17) (趙慶慶, 〈泉音潺湲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 《文學評論》 第57期, 北京:中國社會科學院, 2018.11, pp. 86-94.) 인터뷰 내용 참고함.

18) 루인은 1935년 홍콩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2년부터 간행물과 잡지에 투고를 시작했다. 1955년부터 모더니즘 문학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1973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 후 1987년 량리팡 등과 함께 캐나다화예작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작품뿐만 아니라 캐나다화예작가협회의 활동 소식을 신는 등 다양한 글을 발표하고 있다. 대략 일십년 전만 해도 중국 대륙은 다소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해외 작가의 입국 조차 쉽지 않았고 화인화문문학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오취안은 오랜 시간 캐나다화예작가협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한 작품 활동과 외부 활동을 통해 화인화문문학과 중국문학의 차이를 학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화인 이주자로서 화인의 삶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통해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중국문학학계에서 대륙학자들이 화인화문문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작품에 나타난 화인 이주자의 이상과 현실

제1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의 이주 동기와 목적

화인 이주에 있어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와 1990년대 이후의 이주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이주자가 이주를 결정하는 이유는 출발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난민, 이주 노동자 등의 생계형 이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주 후 이주자가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는 상황과 형편에 따른 피동적·수동적인 형태를 보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이주자는 잘 살고 있으나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이주를 선택한다. 이들은 이상 추구형 이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고학력자와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유롭게 출발지와 이주지를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즉, 1990년대 이후의 이주는 능동적·주동적인 이주의 형태를 보인다. 이주자의 이주 형태의 변화와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구화·지방화 과정은 초국적 이주와 초국적 사회를 촉진시켰다. 이로써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탈경계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이주 형태는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에 등장하는 화인 이주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천하오취안이 캐나다 이주 후 창작한 작품에는 화인 이주자의 이주 현실이 나타난다. 특히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화인 이주자 모습을 통해 이주 동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천하오취안의 작품 중 장편소설 《에덴동산을 찾아서》는 초국적 이주가 빈번한 캐나다 이주 사회를 배경으로 홍콩, 타이완, 중국 대륙 출신의 사람들이 캐나다 이주 생활에서 겪는 이주자의 삶을 보여준다. 작품에는 화인 이주자의 웃음과 눈물, 인간이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의 슬픔과 기쁨이 나타난다.

오대양, 칠대주에서 온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과 단풍국에 대한 동경이 모두를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북미의 문화를 익힌다. 하지만 그들은 모국어와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교실 안팎으로 가져온다. 이런 식의 상호 관찰과 감상, 학습, 상호 간에 주고받는 영향과 충돌은 위단이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이었다. 그는 이 경험들이 장차 자신의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¹⁹⁾

1967년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인종 차별적이며 폐쇄적이었던 이주 정책을 전폭 개혁하면서 이주자들의 인종에 관계없이 신규이주자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1971년부터 다문화 정책을 실행하여 다양한 인종이 자신들의 문화·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활동과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이주자를 위한 정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캐나다의 어느 교실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중국 대륙, 홍콩, 타이완이라는 각기 다른 세 지역에서 온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분석할 수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위단이의 가정은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가정이다. 직업이 화가인 위단이는 당시 홍콩의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 만화를 신문과 잡지에 그려왔다. 이는 위단이가 홍콩의 불안정한 정치·사회를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홍콩을 벗어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홍콩은 도시 발달로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해졌고 또한 경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홍콩의 교육열과 교육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단이는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위단이의 가정은 홍콩에서의 삶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양후이(楊慧)의 가정 또한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가정이다. 그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홍콩을 벗어나 이주지인 캐나다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투자 이민으로 캐나다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Alice의 가정은 타이완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가정이다. 그들이 캐나다로 이주한 이유는 조금 특별하다. Alice는 타이완 본성 출신이지만 그녀의 남편 쉬위안화(徐原華)는 외성인²⁰⁾이다. 이민을 결정할 당시 타이완 사람들의 본토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성인들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현상으로 외성인이 타이완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이완을 떠나게 되었다. 또한 타이완과 중국 대륙 문제에서 느낀 불안도 적지 않았다. 즉 Alice의 가정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벗어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주를 선택했다.

19) 大家來自五大洋、七大洲，不同的命運和對楓葉國的嚮往使大家有緣相聚一起，他們在這裏學習英語，學習北美的文化，然而，他們本身的語言和文化也很自然地帶到了課室內外來，這種互相的觀察、欣賞、學習，互相的影響、沖擊，對餘丹逸來說，實在是一種相當難得的經歷，他肯定這些經驗對自己將來的創作會有裨益。（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52）

20) 일제 식민시기를 거쳐 20세기 중반 대규모 한족 이주자를 가르킴.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확정」,《중국현대문학》제80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7.1, pp. 73-105. 참고.)

또 다른 등장인물로는 중국 대륙에서 온 컴퓨터 엔지니어 우링(武凌)이 있다. 그의 이주는 자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구직을 원했지만 미국 영주권을 얻기가 쉽지 않아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다. 캐나다 이주 후 대학에서 컴퓨터 강사를 하면서 지낸다.

다음으로 천하오취안 단편소설의 작중인물을 바탕으로 화인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분석할 수 있다. <햇빛과 꽃모종>에는 직업이 음악가인 양광(陽光)이 등장한다. 그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칭송받는 음악가로, 음악적으로 더 전문적이고 음악가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자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다. <빌린 아내>에는 전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쟌중(建忠)이 등장한다. 그는 중국 대륙에서보다 더 다양한 기회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자 이주를 선택한다. <스쳐가는 인연>의 자오웨이(趙偉)의 가정은 중국 대륙에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늙었지만 늙지 못한>에 등장하는 웨이방(偉邦)의 가정의 가장 웨이방은 홍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홍콩에서 물리 치료사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더 넓은 세계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미국으로 이주를 선택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중국 대륙, 홍콩, 타이완의 세 지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다. 또한 천하오취안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각기 다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출발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이다. 이주자에게 출발지의 현실은 이주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1984년의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 연합 성명이 발표된 후 홍콩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김두섭(1998)에 따르면 1992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한 홍콩인은 9,614명으로, 1989년의 홍콩 이주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에 많은 홍콩인들이 본인과 가족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들의 재산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곳으로 옮기고자 했다. 또한 1989년 중국 대륙의 톈안먼사건으로 인해 홍콩인들은 혼란스러운 홍콩 사회와 정치적 박해를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에서 살고자 했다. 김두섭(1998)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캐나다 밴쿠버주로 이주한 타이완인은 홍콩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타이완의 경우 1996년 타이완 총통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자 중국 대륙은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며,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천명하였다. 중국 대륙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많은 타이완인들이 장래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는 캐나다로의 이민 신청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²¹⁾

위단이가 말하길, "우선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왜 내가 이민을 가고자 하느냐야. 첫째, 당연히 1997년 홍콩반환과 연관이 있어. 텐안먼사태는 내 결정을 촉진시켰을 뿐이고, 우리 업계는 비교적 민감해. 더군다나 나는 요 몇 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에 짤끔짤끔 정치 만화를 그려왔는데,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논리에도 맞지 않아. 결국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빠르게 변하느냐 천천히 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²²⁾

위 인용문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홍콩에서 살아가는 위단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홍콩반환 이후의 그의 직업과 장래를 고민하면서 이주의 필요성을 느낀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삶의 질에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 복지 제도와 공공 서비스, 의료 혜택을 예로 들 수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자연과 맑은 공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주자에게 있어 출발지와 비교했을 때 이주지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경우, 이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들은 선진적인 사회 체계 속에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이유는 내가 외국의 생활 환경을 좋아해." 위단이가 말했다. "특히 캐나다는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평온하잖아.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멀리 남산을 바라 본다."²³⁾는 말 속 경치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동경하는 바인데 이런 생활은 캐나다에서는 찾을 수 있지, 하지만 홍콩에서 그런 생활을 바라는 건 욕심이고 지나친 바람이야."²⁴⁾

그날 오후 자오웨이와 부인은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근처 백화점을 구경했다. 걸다 지치자 카페에 들어가 커피와 과자를 시키고 부부는 한가롭게 차를 즐겼다. "상하

21)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8.12, 144-181쪽.

22) 餘丹逸說, "首先,我要告訴你的是,爲什麼我想移民。第一,當然是《九七》的關係,《六四》只不過是加快我做出決定。我們這一行是比較敏感,何況這幾年來,我一直斷斷續續地在報紙、雜誌上畫政治漫畫,誰敢擔保將來不會被清算呢?五十年不變絕無可能,這也不合邏輯,問題只是變好還是變壞,變得快還是變得慢而已。"(陳浩泉,《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3)

23) 번잡한 세상사를 피하여 숨어 사는 은자의 초연한 심경을 비유하는 말.

24) "最後一個原因是:我實在喜歡外國的生活環境。"餘丹逸說, "特別是加拿大,平和、美麗、寧靜,《采菊東籬下,悠然見南山》,這樣的景致正是我所向往的,它能在加拿大找到,但在香港欲是奢望了!"(陳浩泉,《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4)

이에서 출근은 전쟁이나 다름없고, 휴일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해. 거기에서는 오후에 차를 마실 여유조차도 없어!" 부인 후이루(慧茹)가 말했다. "오직 캐나다에서만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한가롭게 차 마시면서 당신이랑 얘기를 하네." 아들과 캐나다로 온지 한 달도 안 된 그녀가 벌써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 간 기분인 모양이었다.²⁵⁾

위 인용문을 통해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화인 이주자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다. 출발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육 과열 경쟁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이주로 변화된 환경에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녀교육을 위한 이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 단어가 이어서 말했다. "사실 홍콩의 교육 제도는 별로야. 수준도 떨어지고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어쨌든 애들을 외국에서 진학시킬 작정이면 하루 빨리 해외로 보내는 게 환경에도 빨리 적응하고 홍콩의 중고등학교 시험도 피할 수 있고, 무조건 이득이지. 게다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불문하고 애들이 국제 학생이면 한 명당 비용이 매년 이십만 홍콩달러 이상이 들어. 자식 두 명을 4년제 대학에 보내려면 대략 이백만 홍콩달러 이상이 들고. 이것도 큰돈인데 만약 조금만 더 보태서 집안이 이민을 간다면 애들은 자국민이라 초중등 교육비가 면제야. 대학 학비는 유학생보다 절반 이하에 무이자로 학생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남는 장산데 왜 이민을 안 가겠어?"²⁶⁾

위 인용문에서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녀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이주하게 된 홍콩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넷째,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이다. 이주자는 이주를 통해 자아성취를 꿈꾸며 출발지의

25)那天下午,趙偉和太太送小孩到補習班去,就在附近的商場閑逛。走累了,進入一家咖啡館,叫了咖啡和點心,夫婦倆優閒地享用著下午茶。“在上海,上班就像打仗,假日在家裏帶小孩,做家務,那裏有閑情去喝下午茶!”太太慧茹說,“我想只有在加拿大才能有這種享受。”“咱們好多年沒這樣悠遊自在地一起喝茶聊天了!”看來,和兒子來到加拿大還不到一個月的她,已經感到自己重拾過去幸福的日子了。(陳浩泉,《霧水情緣》,《華報》副刊「華采」版(加拿大),2018.10.12.)

26) 餘丹逸接著說,“其實,香港的教育制度不好,水平也在下降,考試壓力太大,反正要讓孩子到外國升學,不如讓他們早點出去,即可提早適應環境,又可避過香港的中學會考,十利而無一弊。而且,如果他們是國際學生,不論英、美、加、澳,每人每年的費用都將在二十萬港幣以上,兩個孩子四年大學就得花費將近二百萬了,這也是一個大的數目;如果加多點錢,舉家移民,孩子們就是本土生,中、小學免費,大學學費比留學生便宜一半以上,還有免息學生貸款,絕對劃算,何樂而不為呢?”(陳浩泉,《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3)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에서 변화된 나
를 꿈꾼다.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도전을 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이주를 선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우링, 〈햇빛과
꽃모종〉의 주인공이자 음악가인 양광, 〈빌린 아내〉 속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젠중과 같은 인물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여건이 제공되는 이주지로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이주자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된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위의 네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주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주를 선택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동경하는
인물들이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라는 작품명에서 볼 수 있듯이 천하오취안은 작품에서 이상적인
공간을 "에덴동산(伊甸園)"으로 지칭하고 이주자가 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하고자 했
다.

이상을 쫓아서, 동경을 쫓아서, 더 나은 삶을 쫓아서, 중년의 위단이는 또다시 의연
하게 여정에 올랐다.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
득했다. 그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동산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곳은 인류
가 죄를 짓기 전에 살았던 곳이라고 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곳은 토머스 모어가 쓴 유
토피아나 플라톤 마음속의 이상 국가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일찍이 도잠의 마음속에 나
타난 도화원이거나, 또 어쩌면 마치 꿈만 같은 샹그릴라일 수도 있다.²⁷⁾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작품 속 이주자(또는 작가)는 자신이 이주하고자 하는 곳을 "에
덴동산(伊甸園)", "도화원(桃花源)", "샹그릴라(香格裏拉)"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에덴동산은 인류 최초의 고향이라 불리며 선과 악의 구분, 고통과 싸
움이 없는 곳이다. 타오위안밍(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도화원이 가리키는
것은 전쟁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밭에 씨를 뿌려 자급자족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
회다.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묘사되는 "샹그릴라"는 신비하고 평화

27) 爲了追求一個理想，追求一個憧憬，追求更美好的生活，中年的餘丹逸毅然再次踏上征途，此去前程難料，
但他心中充滿著希望與期待，他要去尋找一個如《聖經》中【創世紀】所說的伊甸樂園，據說那是人類未犯罪前
居住的地方。或者，他要找的是莫爾筆下的烏托邦、柏拉圖心目中的理想國。甚至，那也可能是早出現在陶
潛胸中的桃花源。又或者，那是夢幻般的香格裏拉。（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
作家協會，2004, p.40）

로운 계곡, 영원한 행복, 세계와 단절된 유토피아다.

따라서 작품 속 이주자(또는 작가)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거주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세 곳은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세속과 단절된 독립적인 영역, 비교할 대상도 없고 심리적인 격차도 없는 지상낙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 스스로가 그곳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 본다면 《에덴동산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위단이의 가정과 양후이의 가정, 쉬위안화의 가정을 막론하고 심지어 우렁까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는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품 속 우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또한 그들은 수영장과 정원이 있는 별장과 같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생활하며 고급 승용차 등을 소유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우렁은 호화로운 저택 생활을 누리진 않지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작중 인물들의 외형적 거주 상황은 참으로 이상적이다.

작중 인물들의 외형적 거주 상황은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작중 인물이 거주지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래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개혁개방 이전의 폐쇄적인 중국 대륙에서 외국을 선망하는 중국 대륙 출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당시 중국 대륙에는 "외국에 가는 것은 상하이 사람들의 종교고 중국인들의 종교다."²⁸⁾와 같은 표현이 있을 만큼 그들에게 외국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중국 대륙 사람들은 자유와 경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고 외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해외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그들은 외국에 대한 지나친 동경으로 해외로 이주만 한다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민의 꿈을 이루세요." 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들에게 이주는 꿈같은 존재로, 이주만 한다면 꿈같은 이상적인 사회가 펼쳐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 사회를 경험한 이주자는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과 차이가 있음을 깨닫는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이주에 대해 허황된 꿈을 가졌던 이주자들이 이주 생활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

28) “出國就是上海人的宗教。也可以說，出國就是中國人的宗教。”(陳浩泉, 《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114)

둘째, 이주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목표는 현실적이고 단기간의 목표이며 눈앞에 놓인 개인의 이익에 연연한다.

다만 내가 느끼기에는 현대의 중국인들은 중국 대륙과 해외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마치 진정으로 인생에 가져야할 원대한 목표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눈앞의 것이며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예전보다 못해진 점이죠.²⁹⁾

그들은 오직 이주만이 꿈인 삶을 살아왔기에 이주 후의 일은 계획하지 않았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도 이주 전 구체적인 계획과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주자들이 등장한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맞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떠밀려 자신을 잃은 채 이주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이주지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천하오취안이 《에덴동산을 찾아서》를 통해 이주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이주를 바라보는 맹목적인 태도와 이주 전후의 목표의 상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천하오취안이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 에덴동산, 도화원, 샹그릴라를 거론한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주지로서 캐나다에서의 실제적인 삶이 상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초국적 이주는 전 지구화 시대의 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하오취안의 작품 인물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양질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주를 표면적인 조건만 보고 선택했고, 이는 이주 후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주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은 작품을 통해 이주는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이주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이주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주사회의 삶에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29) 只是，我覺得，不論在中國大陸還是海外，現在的中國人好像沒有了真正人生的遠大目標，他們的新目標只是眼前的、私利的、這比過去似乎有所不及了。(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14)

는 풍요로우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이주자는 그들의 이상향을 위해, 이상적인 삶을 목표로 이주한다는 것을 천하오취안 장단편소설 속 작중인물의 이주동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라는 작품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주는 이상향을 찾아가는 하나인 것이다. 이 제목처럼 에덴의 동산을 찾고자 떠난 여정에서 주인공은 에덴의 동산을 찾았을까? 워단이는 이상주의자로 볼 수 있다. 과거에 그는 끊임없이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쫓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주지인 캐나다에서 직접 경험한 이주 현실, 그리고 이주 사회에서 전해들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이상적인 사회로 비유되고 있는 에덴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작품의 끝에는 워단이가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사회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깨닫는 대목이 등장한다.

"어째서 우리의 낙토는 자신의 고향도, 구백육십만 제곱킬로미터의 해당화 잎 위도 아닌³⁰⁾ 이국타향의 지구 다른 한편의 외딴곳에 있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이해했다."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조국만 내 마음에 있으면 돼." "마음이 편안한 곳이 바로 내 집이야." "에덴동산은 일찍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³¹⁾

중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화인 이주자에게는 이주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초기 이주자와 비교했을 때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로 이주를 선택했다. 즉, 21세기의 초국적 이주자는 개인과 가족의 안전 보장, 삶의 질 향상, 이상 추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의 이주지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천하오취안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러한 이주 형태의 변화와 이주 현실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재현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관심과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제2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의 이주 현실

화인 이주자로서 천하오취안은 그가 이주 사회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30) 중국 지도의 모양이 해당화 잎을 닮은 것에 비유.

31) “爲什麼我們的樂土不是在自己的故裏，不是在九百六十萬平方公里的海棠葉上，而是在異國他鄉，在地球的另一個角落呢？”他的理解是：“個人身處何方並不重要，只要祖國在自己心中！”“心所安處是吾家”，“伊甸園早在我心中！”(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70)

작품을 통해 이주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 속 화인 이주자들의 이주 생활 양상은 이주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이주자와, 이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위단이는 이주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극복해나가고 이주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주자다. 그가 이주 사회에서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위단이는 이주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이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 인물이다. 화교 집안 출신으로 중국 대륙에서 홍콩, 홍콩에서 캐나다로 두 번의 이주가 있었다. 그에게 이주란 태평양을 넘는 이사로 표현된다. 특히 그는 이주 생활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 역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주를 선택했으나 이주에 대한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사실적으로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주 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이주 후 위단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이주자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던 쉬위안화는 돈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는 가족보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 여겨 기러기 가족이 된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

그는 꿈꿔왔던 도화원에 와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속세의 돈과 명예를 잡고 놓지 못하는가? 번데기가 두꺼운 고치를 벗지 못하면 끝내 자유롭게 나풀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쉬위안화 당신은 일생이 지혜롭고 유능했지만, 인생에서 가정 명칭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짓을 저질렀구나.³²⁾

쉬위안화는 타이완 본성 출신인 Alice의 남편으로 이주 후에도 사업으로 인해 중국 대륙, 캐나다, 미국을 오가며 '기러기 가족'의 삶을 살았다. 주인공 위단이는 이주에 성공하여 남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돈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한 쉬위안화를 비판한다. 위단이는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2) 他既然已來到夢想中的桃花源，為什麼還放不下，還那麼執著於俗世的金錢名利，以至未能超脫飄然？蟲蛹不掙脫厚繭，就始終不能成為自在飄飛的彩蝶。多可惜啊，徐原華，你一世精明能幹，但卻做了一生中最愚蠢而且無可彌補的直達的錯事。(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10)

셋째, 위단이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이주 생활을 하고자 했다. 그는 당장의 결과보다 앞을 내다보려고 한다. 이런 그의 태도 덕에 이주 생활에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왕 온 바에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전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망도, 낙담도 방심도 하지 않고 애써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합니다. 당신의 앞날은 반드시 빛날 겁니다!" 위단이는 그녀를 격려했다. 33)

또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주의 결과가 어떠한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위단이는 자신이 잘못된 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망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34)

사실상 홍콩을 떠나던 그날 이후로 그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든지 간에, 그는 한결같이 행동했다. 외지에서 수입에 대해 사실대로 기입하여 보고하고 홍콩의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기입하여 보고했다. 회계사에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성실한 캐나다인이 되기를 요구했다. 35)

위단이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이주자로서 하루빨리 캐나다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이주 사회를 살아가고자 한다. 이주자가 이주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의 충족과 더불어 위단이 개인의 태도는, 그가 캐나다 이주 사회에 빠르게 적

33) “既來之，則安之。一切從頭來，不怨對，不灰心，不松懈，努力向前看，你這樣的態度很對。你的前景絕對是光明的！”餘丹逸也勉勵她。(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31)

34) 然而，餘丹逸並不認為自己來錯了地方，既不失望，也不後悔，對未來，他還是懷著希望。(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52)

35) 事實是，從離開香港那天開始，他就沒打算再回去長居。現在，不論身邊的人怎樣改變轉方向，他依然不為所動。外地的收入，他照實填報；香港的資產，他也照實填報。他請會計師報稅，從合法的途徑去減輕稅務負擔。他要求自己做一個誠實的加拿大人。(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2004, p.151)

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이주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주자의 모습도 나타난다.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던 이주자들은 이주지에서의 삶이 이상과 다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천하오취안의 작품에 나타난 이주 후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자를 바탕으로 이주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양상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새로운 환경에서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다. 이주자는 이주지에서 흔히 언어 사용의 어려움, 출발지에 대한 향수, 직업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 사회적 지지 기반의 상실,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현상을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정의한다. 문화 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는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정체성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³⁶⁾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 가정이 등장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초국적 이주로 인한 '기러기 가족'의 모습이 나타난다. 낯선 이주 사회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고 '기러기 가족'이 되면, 그들은 낯선 환경과 배우자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서적 불균형으로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스쳐가는 인연〉에서의 주인공 자오웨이는 가족들이 더 쉽게 이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캐나다로 이주한다. 하지만 그는 달라진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임시의 인연을 찾게 된다.

〈햇빛과 꽃모종〉에는 이주지인 캐나다의 이주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가인 주인공 양광은 화묘오(花苗)와 사제 간이다. 양광은 화묘오의 음악적 천재성을 보았고 줄곧 그녀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그들은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아내까지 남편 양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들의 관계는 의심할 필요 없었던 사제 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 32권 제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p.304-331.

이날 추도회에서 남편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처럼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인의 마음은 위로를 얻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다. 그의 부인이자 그의 일생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과거에 나는 그를 많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가 가족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사실상 나는 한 예술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예술도 모르면서 얼떨결에 한 예술가와 평생을 살았으니, 어쩌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실수일지도 모른다!³⁷⁾

이주 사회의 낮은 환경과 루머는 양광의 부인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야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친다. 이를 통해 환경의 변화와 이주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이주지에서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서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주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일부 이주자들은 구직에 있어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캐나다로 왔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구직이 어렵거나 백인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인 이주자들 사이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이주 현실이다. 또한 구직에 성공한 뒤에도 출발지에서의 직위와 거주지에서의 직위에 차이를 느끼는 이들도 많다. 출발지에서의 명예와 능력, 경제력과 현실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주 사회의 처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는 출발지에서의 직업과 직위를 포기하지 못해 '기러기 가족'의 생활을 자처하는 가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돈벌이를 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빌린 아내〉에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독특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 이주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작품에는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륙 남성이 등장한다. 그의 부모님은 노총각이 된 아들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설을 보내기를 원한다.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임시의 여자 친구가 필요했던 그는 인터넷에 '가짜 여친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게 된다. 이 일에 대한 보수는 상당했다. 비정상적인 것은 글을 보고 임시의 여자 친구 역할을 자처하는 여성 이주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주 사회에

37) 這天在追思會上，見到丈夫有這麼多了解他、欣賞他、敬重他的人，陽太太心裏既安慰，也同樣有一份愧疚——作為他的太太，他一生中最親密的人，在這方面我卻還不及這些外人。過去，我對他諸多抱怨，諸多不滿，認為他沒有給家人最好的生活。實際上，我沒有真正了解一個藝術家的心靈。我不懂藝術，卻糊裏胡塗地和一個藝術家廝守一生，也許這真是上帝美麗的錯誤了！（陳浩泉，〈陽光與花苗〉，《都市報》副刊（加拿大），2010.4.23.）

서 여성 이주자 신분 of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어떠한 일이라도 닦치는 대로 해야 했던 이들의 현실이 잘 드러난다. 이처럼 이주 후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출발지에서 의 경제적 여건 악화와 교육 수준, 상황에 따라 이주지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이주자의 현실이다.

셋째,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다. 이주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체류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나 실제로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늠였지만 늠지 못한>의 홍콩 출신의 첫째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몇 년이 지난 후 홍콩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오게 된다. 어느 날 부친이 쓰러지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 양로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인 부친은 미국 영주권이 없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양로원에 가지 못한다. 만약 영주권이 있다면 미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이 없는 부친은 오직 사립 양로원에만 들어갈 수 있다. 사립 양로원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아들 내외는 부친을 다시 홍콩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불안정한 신분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이주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이주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이주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막연하게 그들의 삶이 행복하리라 추측한다. 이주 이후의 삶은 대체로 평탄하고 자유로우며 풍요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주자들이 이상적인 사회에서 양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천하 오취안의 작품을 통해 본 실제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이주했지만 현실과 이상에서 괴리를 경험하는 화인 이주자 거니(戈妮)가 등장한다. 그녀는 이주만 한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인생에서 이주가 꿈이자 목표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없는 국가라고 믿었던 캐나다에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대우는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새장 안의 화미조>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이주 현실을 새장에 갇힌 새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아름다운 정원에 나무로 된 새장에 갇힌 새를 어느 날 주인이 투명 유리로 된 새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새는 나무로 된 새장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새장에서 더 살아야 한다면, 원래 내가 살던 나무로 된 새장에서 살 거예요. 유리로 된 새장은 필요 없어요." 화미조는 생각했다. 일단 유리로 된 새장에 들어가면 외부 사람들은 자신이 새장을 나와 화원을 날아다니며 완전히 자유로워진 줄 알 것이다. 사람들은 새장이 사라졌다고 여기겠지만 나는 영원히 유리로 된 새장 안에 살아야 한다. 공연히 소란만 피울 것 없지, 나는 절대 계약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³⁸⁾

새는 자신이 투명 유리로 된 새장으로 옮겨진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유를 얻은 새로 착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천하오취안은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 유리로 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해 자유롭고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인 이주자의 현실을 드러냈다.

다섯째, 가치관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다. 기존에 중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화인 이주자는 이주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가치관 충돌과 동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통해 이주지인 캐나다의 서양 사회에서 출발지에서부터 형성된 중국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천하오취안의 단편소설 〈일평생의 행운〉, 〈상씨의 성명학〉, 〈안녕 왕자〉에서 '이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고관을 가진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일평생의 행운〉은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도박에 빠진 우왕(吳旺)을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된다. 우왕은 도박에 빠져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우왕은 서양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양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름 탓으로 돌린다.

우왕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를 원망했다. 본래 '왕(旺)'은 좋은 뜻이다. 어느 누가 왕성한 발전을 마다하겠는가? 다만 '旺' 앞에 '吳'라는 성이 붙으면 성가셔진다. '우왕(吳旺)에서 무왕(無旺)'이 되거나,³⁹⁾ 그렇지 않으면 '무망(無望)'이 되어 버리니 문제다. 왕성은 고사하고 희망도 없다니, 얼마나 불행한가! 당시 아버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니, 어찌 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⁴⁰⁾

38) “如果還要住籠子，我寧願住這原本的木籠子也不要玻璃籠子！” 畫眉心想——一旦住進玻璃籠子，外面的人還以為我走出了籠子，飛進了花園，完全自由了。人家以為籠子已消失，但我卻可能永遠要住在玻璃籠子裏。沒吃羊肉一身騷，我才不中計呢！(陳浩泉, 〈烏籠裏的畫眉〉, 《明報》副刊「明藝」版(香港), 2014.11.8.)

39) 중국어 吳와 無는 wú로 같은 음을 가진다. 「吳旺(번성하다)——無旺(번성할 수 없다)」, 「無望(희망이 없다)」는 wú wàng로 음은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진다.

캐나다 사회에서 고집한 중국적 가치관은 우왕이 이주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들은 이름을 통해 그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과 기원의 의미를 담으며 그 뜻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에 위와 같은 사고관을 가졌던 작중 인물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만 닦는다. 이처럼 이주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대신 어설픈 동양 철학이나 미신을 들먹이며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섯째, 정체성 혼란으로 야기되는 문제이다.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화인 이주자는 출발지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충돌하게 된다.

〈양귀비〉에는 현충일(國殤日)⁴¹⁾을 맞이한 화인 가족이 등장한다. 아들 peter와 아버지 친웨이(秦煒)는 의견 차이로 갈등한다.

친웨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남들은 '순국열사'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조상 열사'야! 너희 외할아버지와 외삼촌께서 모두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것을 잊었니? 오늘은 당시 그들을 죽인 군인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네가 그 꽃을 달수가 있니?"⁴²⁾

아들 peter는 캐나다 현충일은 전쟁 중 사망한 희생자를 기념하는 날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의 갈등에서 부인 쉰이링(穗玲) 역시 과거에 얽매어 있고 중국 대륙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친웨이를 비판한다.

"보아하니 어리석은 건 당신이예요." 쉰이링이 말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사소한 일까지 트집을 잡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40) 吳旺從小就不喜歡自己的名字。他的確埋怨給他取名的父親。本來，「旺」是好的，誰不想興旺發達。只不過，「旺」這個名的前面加上「吳」這個姓，麻煩就來了。「吳旺——無旺」，不然「無望」也糟糕，既沒了興旺，也沒了希望，那多倒黴呀！當年老爸就沒想到這個，能不怪他嗎？(陳浩泉，〈一生好運〉，《都市報》副刊(加拿大)，2010.3.12.)

41) 國殤日是 11월 11일 캐나다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다. 이날은 캐나다 6개의 주 및 3준주에서 공식 지정한 공휴일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캐나다 군인들을 애도하는 기념식 행사가 열림. 양귀비 데이(Poppy Day)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시민들의 왼쪽 가슴 위에 꽃힌 양귀비꽃을 흔히 볼 수 있음. 陳浩泉의 단편소설 〈罌粟花〉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罌粟花는 양귀비를 뜻하는 것으로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코트라 제공 2019.09.07. 검색)

42) 秦煒怒氣沖沖地說，“人家是『國殤』，咱們可是『家殤』！你忘了你爺爺和舅舅都死在朝鮮戰場上嗎？現在這日子就是紀念殺死他們的軍人，那麼，你還能戴這花嗎？”(陳浩泉，〈罌粟花〉，《都市報》副刊(加拿大)，2010.6.25.)

"얼마나 됐건 간에 아버님과 당신 오빠가 한국전쟁에서 죽은 건 변치 않는 사실이
야."

"맞아요, 그들은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게 한 것이 미군의 총알인지 아니
면 남한군의 총알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⁴³⁾

친웨이는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중국 대륙 중심적인 사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캐나다인이라는 명확한 신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들 peter와 달리 친웨이는 중국 대륙과 캐나다 사이에서 스스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분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아들과의 마찰을 겪는 친웨이를 통해 문화정체성과 신분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화인 이주자의 이주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양귀비>의 주인공 친웨이는 중국 대륙출신으로 중국인이라는 신분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거주지의 변화로 그의 국적은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녀왔던 신분정체성과 변화된 환경에서의 그는 신분정체성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으로 출발지에서부터 경험한 문화정체성과 변화된 환경인 캐나다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 사이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발지와 이주지 양국에서 삶을 경험한 이주자 본인의 정체성은 거주지에서의 삶을 경험한 그 자녀의 정체성과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환경은 변했으나 개인의 정체성은 달라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주자들 간에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아시아인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캐나다에는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캐나다의 시장 상황을 변형시켰다. 하지만 이주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 문제도 초래했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도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등장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같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를 살해한 중국 대륙 유학생, 내연녀를 살해한 화인 이주자 우링, 사업이 어려워져 가족을 총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인 이주자 쉬위안화, 클럽에서 흑인을 총살한 화인 이주자 양후이의 아들의 이야기나 <일평생의 행운> 속 도박에 빠져 일가족이 몰살한 화인 가정의 이야기는 이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잘 보여준다.

43) “看來胡塗的是你。”穗玲說，“爲什麼這麼固執，要鑽這牛角尖呢？都什麼年代了啊！”“無論多久，老爸和你哥死在朝鮮戰場是不能改變的事實。”

“對，他們是死在朝鮮，但你知道殺他們的是美軍還是南韓軍的子彈嗎？”(陳浩泉，〈罌粟花〉，《都市報》副刊(加拿大)，2010.6.25.)

44) 최병두, <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 - 네트워크와 아상블라주>,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08, pp.156-204.

이주 현실이 항상 모든 면에서 평탄하고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주자의 현실이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천하오취안은 작품을 통해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주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이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볼 것을 권한다. 또한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주인공 위단이처럼 이주에 대한 바른 태도와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이주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제시한다.



제4장 작품에 나타난 화인 가정의 변화 양상과 초국적 가정의 형성

제1절 작품에 나타난 화인 가정의 변화 양상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작품에서 가정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가정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천하오취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 캐나다에 이주한 화인 가정의 다양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에 이주한 화인 가정의 모습은 대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통상적인 가정이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위단이의 가정은 가족관계에서 이상적이고 통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위단이는 이주 현실에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배우자와 의논하고,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세 가정 중 위단이의 가정만이 이주 사회에서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주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이들은 이주 후에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이주자의 정서가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은 이주 후에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고, 변화된 거주지에서 가족의 모습을 지속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역할의 중요성과 결속력을 강조한다.

둘째, 위기의 가정이다. 이주 사회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가정은 크게 변화된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위기를 겪게 되는 가정, 이주로 인해 가족이 격리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귀비〉에는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정체성을 고수한 탓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아버지 친웨이는 중국 대륙에서 중국 중심적인 사고가 형성된 인물인 반면, 아들 peter는 유년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인물이다. 캐나다의 현충일을 맞이한 화인 가정에서 아들 peter와 아버지 친웨이는 신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된다.

〈햇빛과 꽃모종〉에는 이주지인 캐나다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을 믿지 못해 위기를 겪게 되는 화인 가정이 나타난다. 음악가인 양광은 화야오와 사제 간이다. 화야오의

음악적 천재성을 발견한 양광은 스승으로서 그녀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 사회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부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인까지 남편 양광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 가정은 변화된 거주지로 이주자의 정서가 불안해졌고 이주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배우자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통해 이주로 인해 가족이 격리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가정을 볼 수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작중인물인 중국 대륙 남성 우링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미국에 오기 전 중국 대륙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재하는 거주지의 외로운 생활에서 미국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여자와 배우자 몰래 동거를 하게 된다.

〈스쳐가는 인연〉에서 가족이 격리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이주 가정도 있다. 〈스쳐가는 인연〉에는 부인과 자식은 중국 대륙에 남겨두고 먼저 이주한 자오웨이가 등장한다. 예상보다 빨리 중국 대륙에 있던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었고 마침내 세 식구가 함께하게 된다. 〈스쳐가는 인연〉은 자오웨이의 가족이 캐나다로 오기 전, 그와 동거녀인 인메이(殷玫)와의 만남에서부터 동거하기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준다. 자오웨이와 인메이는 2년 전 설날 연회에서 알게 되었다. 각자의 배우자는 중국 대륙에 있었고 외로운 이주 생활에서 둘은 마음이 맞아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한다. 둘은 이주 생활에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했고 이성적으로 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타국에서 배우자 없이 지내는 시간에서 정서적 공허함을 느꼈고 서로를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대륙에 있는 배우자가 캐나다로 오기 전까지 잠깐 동거하기로 한다. 이들은 서로의 배우자가 오면 깨끗하게 임시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메이는 자오웨이의 가족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오웨이의 가족 주변을 서성이며 과거의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하아, 무슨 견우와 직녀가 매년 가을 바람이 불고 이슬이 맺히면 한 번을 만난다니, 둘의 애정만 영원하다면 굳이 항상 함께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소리! 이건 그냥 신화 속에나 있는 미담일 뿐이야. 우리는 현실의 평범한 속세의 사람이고, 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낭만을 누릴 만한 복이 없어." 자오웨이가 말했다. "인메이,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서로를 보살펴 줄 수도 있고 반값도 아끼고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⁴⁵⁾

45) “嘿，什麼牛郎織女每年金風玉露一相逢；什麼兩情若是久長時，又豈在朝朝暮暮！這只是神話裏的美事。

이주 사회의 낮은 환경,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에서 자오웨이와 인메이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외롭고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더 불쌍해. 물도 한 방울도 없어." 자오웨이는 한숨을 쉬었다. 인메이는 재임차인 신분으로 자오웨이의 집으로 이사해 임대료를 나눠 부담했다. 그들은 같이 밥을 먹고 식사비나 수도세, 전기료도 모두 똑같이 나눴다. 이 '밥 동무이자 잠동무'인 관계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누구의 배우자가 오면 이 임시 관계도 즉시 끝난다. 모이고 흩어지기도 쉽고 오고 가기도 쉽다. 쌍방의 공통된 의식은 이렇었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임시의 인연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사랑했던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⁴⁶⁾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스쳐가는 인연〉에는 이주 후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주자들의 정서가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작중 인물들은 배우자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화인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해 변화된 이주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이주자를 정서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밥 동무이자 잠동무"라는 표현을 통해 서양 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화인 이주자의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셋째, 해체된 가정이다. 이주 사회에서 해체된 가정의 모습은 '기러기 가족'(太空人家族) 현상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 변화된 거주지에서 발생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해체된 가정, 경제적 문제로 해체된 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주 생활에서 해체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러기 가족' 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캐나다로 이주한 화인 이주자 중 캐나다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가족들을 캐나다에 남겨두고 출발지로 돌아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러기 가족'이 등장한다. 캐나다의 경제가 부진해지고 국채가 늘어나 생계를

咱們這些現實中的凡夫俗子，要工作，要吃飯，會寂寞，會生病，可沒福份享受這種浪漫！”趙偉說，“殷玫，不如一起住吧，大家有個照應，也可以節省點房租。”她點頭。(陳浩泉，〈霧水情緣〉，《華報》副刊「華采」版(加拿大)，2018.10.12.)

46) “真的，家裏沒個人，孤苦伶仃的，一有病痛更可憐，水也沒一滴！”趙偉歎氣。就這樣，殷玫以三房客的身份搬到了趙偉家來，分擔了一份租金。他們一起吃飯，夥食費、水電費也都對分。大家更爲這“既搭飯夥又搭床夥”的關係來個君子協定：誰的另一半來了，這種臨時關係立即結束。好聚好散，好來好去。彼此的共識是：臨時情緣乃現實所需，“不在乎天長地久，只在乎曾經擁有。”(陳浩泉，〈霧水情緣〉，《華報》副刊「華采」版(加拿大)，2018.10.12.)

이끄는 것이 쉽지 않자 적지 않은 캐나다 화인 이주자 신분의 가정은 대륙, 타이완, 홍콩에서 돈을 벌며 캐나다로 송금하고 부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형태로 '기러기 가족'의 생활을 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양후이의 가정을 통해 해체된 이주 가정을 볼 수 있다. 양후이의 가정은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이주 가정이다. 양후이의 남편은 홍콩과 대륙 그리고 캐나다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었다. 양후이 일가는 전형적인 '기러기 가족'으로 오랜 시간 부부가 육체적·정서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면서 서로의 감정에 소홀해졌다. 또한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사이에 신뢰가 떨어지고 서로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말다툼도 잦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후이는 외로움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힘들어졌다. 이에 그녀는 딸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배신감을 느낀 딸은 가출하게 된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가장이 이를 알게 되었고 결국 양후이의 가정은 해체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Alice 가정은 타이완 본성 출신의 이주 가정이다. 그의 남편 쉬위안화는 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면의 사업가다. 쉬위안화는 타이완, 캐나다, 미국에 회사가 있어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간보다 사업 때문에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의 부인 Alice가 캐나다에 남아 세 자녀를 돌본다. 이 역시 전형적인 '기러기 가족'이다. 타이완의 주식 시장이 쇠퇴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자 쉬위안화의 사업도 영향을 받았다. 힘든 시기에 배우자의 부재는 쉬위안화의 정서적 불안을 가속화시켰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쉬위안화는 자신의 가족을 총기로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하면서 가정이 해체된다.

작품을 통해 변화된 거주지에서 발생한 문화적 차이로 해체된 가정도 볼 수 있다. 천하오취안의 〈일평생의 행운〉에는 미국에서 도박에 빠진 캐나다 화인 이주자 우왕이 등장한다. 우왕은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를 갔다가 도박에 중독되고 만다. 그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처음에는 집안 재산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회사 돈까지 횡령하게 되었다. 그는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결국 그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함께 자살을 선택하면서 가정이 해체된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이주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해체된 가정도 나타난다. 〈늠었지만 늠지 못한〉에는 결혼 후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첫째 아들 내외가 등장한다. 장남인 웨이방 일가는 미국으로 이주한지 십 년이 넘었다. 홍콩에서 큰아들의 빈자리로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님을 위해 3년 전 웨이방은 홍콩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미

국으로 왔다. 첫째아들 내외와 미국의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던 부친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상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들 내외는 아버지의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퇴원 후 아버지를 보살필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병원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자 결국 그는 아버지를 다시 홍콩으로 보내기로 한다.

라오친(老秦)의 병세가 완화되자 병원에서는 그를 계속해서 머물게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도 출근하는데 그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 양로원에 들어갈 것인가? 그는 미국의 국민이거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웨이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홍콩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다. 동생이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홍콩 주민이기 때문에 홍콩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다.⁴⁷⁾

〈늙었지만 늙지 못한〉에서 첫째 아들 웨이방은 영주권이 없는 부친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방이 찾은 절충안으로 아버지를 다시 홍콩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他不是公民或居民"⁴⁸⁾이라는 표현 속에 이주 사회에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주 사회에서 영주권 취득 여부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과거, 그는 자손이 없는 사람이나 양로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식도 손자도 있는 자신이 결국 양로원 침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될 줄이야! 자신의 아들은 양로원에서 일하며 다른 노인들 시중을 들지만, 정작 병든 자기 아버지는 모시러 오지 못한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세상사는 이토록 터무니없다.⁴⁹⁾

라오친은 아들이 미국에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미국 영주권이 없는

47) 當老秦病情穩定下來，醫院不能讓他久住了。但如出院回家，兒媳要上班，沒有人照顧他；進老人院嗎，他不是公民或居民，只能住私營老人院，收費極高昂，根本無法負擔。這時候，偉邦唯一的方法只能是把老爸送回香港了。即使弟弟不能照顧他，他是香港居民，也能進香港的護老院。(陳浩泉，〈吾老，不被「老」〉，《香港作家》第4期，香港：香港作家聯會，2010.7，pp. 25-27.)

48) “他不是公民或居民”은 “그는 공민도 주민도 아니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이주 사회에서 신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49) 過去，他總認為沒有子孫的人才住老人院，但沒想到自己有兒有孫，現在也淪落到成為了老人院的床位客！自己的兒子在老人院工作，在服侍別的老人，卻不能來服侍自己患病的父親！說起來也許沒人會相信，但這卻是事實。世事就是這麼荒謬的。(陳浩泉，〈吾老，不被「老」〉，《香港作家》第4期，香港：香港作家聯會，2010.7，pp. 25-27.)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민간 양로원에 있다면 아들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는 홍콩으로 돌아와 양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 부양을 기대했던 아버지는 아들의 대응에 실망하게 된다. 라오친이 홍콩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화인 가정은 해체된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를 경험한 자식 세대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절충적 방안을 찾았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늙었지만 늙지 못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했지만 이주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해체된 가정을 볼 수 있었다. 이상적인 삶을 목표로 이주했지만 출발지에 남겨진 부모와 이주지에서 살아가는 자식 사이에 부모 부양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이주 가정을 변화하게 만든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화인 화문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천하오취안의 작품뿐만 아니라 캐나다화인화문작가인 거이판(葛逸凡)의 작품에서도 이주로 인한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해체된 가정이 나타난다. 〈우리 아들은 여느 집 자식과는 달라(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에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만 아들 내외의 권유로 재산을 아들 명의로 옮기고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부부가 등장한다.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곧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기로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캐나다에 남겨진 노부부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노부부는 아들 내외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다른 집 자식과는 다르다 생각하며 언젠가는 자신들을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을 기다린다. 〈우리 아들은 여느 집 자식과는 달라〉와 〈늙었지만 늙지 못한〉의 가정은 캐나다에서의 생활로 가족 부양에 관한 의식이 변화된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의 문화적 차이로 가정에 변화가 생긴다.

넷째, 재구성된 가정이다. 작품을 통해 이주 사회에서 법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재구성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은 타이완 본성 출신의 화인 이주자와 홍콩 출신의 화인 이주자의 재혼을 다룬다. 타이완 본성 출신의 화인 모자와 홍콩 출신의 화인 부자가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결합하여 재구성된 가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나는 너를 보았다〉는 캐나다인과 화인 이주자의 재혼을 다룬다. 백인 모녀와 화인 부자의 결합으로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가정이 재구성된다.

위의 작품에서 언급한 이주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 이주 가정에서 가족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주지의 변화가 이주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 가정은 출발지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에게 이로운 사회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이주를 결심한다. 하지만 이주자는 이주지에서 문화 적응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인종 차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주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은 우울, 정신분열, 불안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이주자는 언어 사용의 어려움, 모국에 대한 향수, 직업과 사회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주자가 경험하는 변화와 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는 이주자가 속한 가정과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⁵⁰⁾ 이주로 인해 변화된 거주지의 생활에서 타인과의 왕래가 잦은 남성 이주자에 비해 여성 이주자의 경우 이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출발지와 비교했을 때 더 좁아지기 쉽다. 그들에게는 가족 혹은 이주사회에서 알게 된 소수의 이주자가 전부다. 이러한 관계 속에 여성 이주자는 그들의 생활이 단조롭고 고독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여성 이주자의 경우 남성 이주자의 비해 이주지에서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느낀다. 대부분의 이주자에게 이주 사회에서 인맥을 맺고 백인 사회에 들어가 백인과 교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출발지에서 누려왔던 인간관계와 활동 범위를 이주지와 비교했을 때 이주 사회를 경험한 이주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주 생활에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⁵¹⁾ 또한 낮은 거주지의 환경은 이주자의 정서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 낯설고 어려운 이주 사회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과 몇 안 되는 지인밖에 없는 삶에서 수입 확보라는 이유로 '기러기 가족'이 되는데, 이후 배우자의 부재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로 정서가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스쳐가는 인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기러기 가족'을 통해 낮은 거주지와 배우자가 부재하는 상황이 이주자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환경적·정서적 변화가 이주자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주 현실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함께하지 못하는 '기러기 가족'의 상황에서 정신적·육체적 결핍으로 배우자를 뒤로한 채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주자, 〈늙었지만 늙지 못한〉의 연로한 부모의 부양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주자는 이주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주자들은 이주 사회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해결책을

50)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 32권 제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p.304-331.

51) 김혜준교수가 구두로 제공한 아이디어, 2019.07.29.

찾고자 했으나, 끝내 가족 관계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셋째, 이주 사회에서 경험한 문화적 차이가 이주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주를 선택함으로써 이주자는 출발지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양귀비>와 <햇빛과 꽃모종>에는 이주 후 달라진 공간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이주자가 등장한다. <일평생의 행운>에는 미국에서 카지노를 경험하게 된 화인 이주자가 등장한다. 그는 처음 경험한 미국의 도박 문화에 빠졌고, 결국 가정이 해체된다. 이주 사회에서 백인 사회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문화는 화인 이주자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가족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넷째, 경제의 변화가 이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출발지와 이주지의 구분을 막론하고 국가의 경제 변화는 국가의 금융, 부동산, 산업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나아가 가정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에덴동산을 찾아서》에서는 특정한 장의 제목 자체가 "홍콩인의 역이주 현상"일 만큼 당시 경제 변화가 이주자에게 가져다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경제의 변화가 이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초국적 인구 이동이 항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1980~90년대에 떠났던 홍콩 출신 이주자 가운데 30% 가량이 홍콩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추산된다.⁵²⁾ 1997년 홍콩 반환 직전 캐나다로 이주를 갔던 이주자 중 상당수의 화인 이주자는 2005년 경제가 고속 성장하자 홍콩으로 역이주한다. 이는 홍콩 출신의 이주자들이 홍콩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자 기회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홍콩의 경제발전으로 홍콩에서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장년층, 특히 남성들은 생계를 위해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고, 캐나다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년층과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여성 이주자의 경우 계속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에덴동산을 찾아서》 속 홍콩 출신인 양후이의 가정은 경제적 변화로 '기러기 가족'이 된 후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가족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에덴동산을 찾아서》 속 타이완 본성 출신인 Alice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쉬위안화가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에서도 경제의 변화가 사회뿐만 아니라 이주 가정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이 잘 드러난다.

이상에서 화인 가정의 변화 양상과 이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이

52) 윤영도, <신자유주의 시대 중국계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의 형성과 변천 - 밴쿠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8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4.3, 183-215쪽.

과정에서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모습의 이주 가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천하오취안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가정을 초국적 가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초국적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제2절 작품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의 형성

20세기 중반 이래, 특히 1980년대 이래 전 지구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노동의 수시 이동, 교통의 발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등이 결합하여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양적으로 더욱 증가되고, 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더욱 잦아지고, 현상적으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⁵³⁾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대량 출현과 더불어 초국적 가정이 탄생했다. 초국적 가정은 국제 이주의 증가로 가족이 하나의 국민국가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족적 삶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킨다.⁵⁴⁾ 나는 초국적 가정이 탄생하게 된 원인은 아래의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이주자의 이주 형태와 이주 목적이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야기했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는 노동자(苦力) 형태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노동 및 생계형 이주가 주를 이뤘고,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다룬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화인작가인 장링의 《골드마운틴》은 19세기 중엽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부 개발에 따른 골드러시와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을 위해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중국의 농민들이 대거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 일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이 작품에는 생계를 위해 출발지를 떠나 이주지에서 육체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초기 화인 이주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 천하오취안의 《에덴동산을 찾아서》, 《늪였지만 늪지 못한》, 《스쳐가는 인연》, 《빌린 아내》와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자는 출발지의 정치·사회적 불안, 자녀교육, 자아추구 실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추구형 이주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초기 이주자와 달리 개인과 가족의 목적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이처럼 변화된 이주자의 이주 형태와 이주 목적이 초국적 이주자와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53)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54) 이민경, 김경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계적 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2, pp. 179-209.

둘째,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변화된 의식은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야기했다.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이주지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이주지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원거주민에게 그것을 이식하려 하거나, 반대로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기본적으로 포기하면서 이주지 원거주민의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에 동화되려 하거나, 또는 이주지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면서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⁵⁾ 하지만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기존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기존의 것들을 유지한 채 이주지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의 형태를 보인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혹은 국가)이라는 틀에 속박되지 않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자유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태도의 변화가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초국적 가정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본다. 초국가주의에 대한 포르테스(Portes 1997)의 주장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국가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⁵⁶⁾ 초국적 이주자들은 출발지와 이주지를 바탕으로 형성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 후에도 계속해서 출발지와 연결을 놓지 않는다. 초국적 이주자가 형성한 밀도 있는 네트워크는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다양한 모습의 초국적 가정이 등장한다. 나는 천하오취안의 작품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을 다음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천하오취안의 작품에는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초국적 가정이 등장한다. 그중 사업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은 초국적 가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속 Alice의 가정과 양후이의 가정의 가정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 이들은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이주지인 캐나다를 오가는 초국적 가정이다.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에는 사업으로 인해 초국적 가정이 된 화인 가정이 나타난다. 이 화인 가정의 부모는 타이완과 홍콩의 사업으로 장시간 캐나다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사업으로 인해 출발지와 이주지인 캐나다를 넘나들면서 캐나다에 남겨진 자녀와 가족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자녀 교육을 목적

55)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56) 김경학, 〈피지계 인도인의 초국가적 성격〉, 《인도연구》 2-10, 한국인도학회, 2005, pp. 1-42. 재인용.

으로 초국적 가정이 된 화인 가정이 나타난다. 이 화인 가정은 어린 자녀들만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에 따라 부모가 출발지와 캐나다를 오가며 가족적 삶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출발지에 남겨진 가족과 이주지에서 거주하는 화인 가정은 필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족적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 또한 초국적 가정의 유형으로, <늪였지만 늪지 못한>, <빌린 아내>, <일평생의 행운>을 통해 초국적 가정을 볼 수 있다.

<늪였지만 늪지 못한>과 <빌린 아내>에는 출발지에 남겨진 부모 세대와 이주지인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자식 세대가 필요에 따라 출발지를 방문해 친족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국적 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 <일평생의 행운>에는 캐나다 이주 후에도 자녀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출발지인 타이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친인척과의 시간을 보내는 초국적 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의 특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이주자들이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들의 초국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국적 가정은 이주 후에도 교통·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발지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늪였지만 늪지 못한>, <일평생의 행운>에는 이주 후에도 교통 수단을 통해 출발지와 이주지를 넘나들며 출발지에 남겨진 가족들과 왕래하는 초국적 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쉬위안화와 마무성(馬茂成)은 출발지에서 형성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출발지와 거주지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초국적 가정의 가장이다. <늪였지만 늪지 못한>에 등장하는 홍콩 출신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주 한 후에도 홍콩과 미국을 오가며 친지를 방문하고 있는 초국적 가정과 <일평생의 행운>에 등장하는 자녀의 방학을 맞이해 부친의 고향인 타이완으로 놀러가 친인척과 교류하는 모습도 초국적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초국적 가정이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계속해서 연계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본격화된 지구·지방화가 초국적 사회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국적 가정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빌린 아내>에는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전화 통신을 통해 떨

어져 있는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초국적 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에는 어린 자녀만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통신 수단을 바탕으로 부모와 교류하는 초국적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내 딸이 해 준 애긴데, 딸 친구가 두 남매만 밴쿠버에 있대. 근데 걸핏하면 저녁을 하면서 국제 전화를 해서 타이완에 있는 엄마한테 반찬은 어떻게 만들고 국은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묻는대!" Alice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제일 안쓰러운 건, 병이 났을 때 약장의 약을 모두 쏟아냈는데도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또 장거리전화로 도움을 청했다는 거야."⁵⁷⁾

또한 〈빌린 아내〉를 통해 전세계화의 흐름으로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초국적 이주자가 중국 대륙에 남겨진 부모에게 전화로 친족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국적 가정을 볼 수 있다.

"젠중이니? 어제 왜 전화를 안했니!" 엄마의 목소리였다. "어제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를 받자, 젠중은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너는 한 주에 고작 한 번 전화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억해야지! 알겠니? 네 목소리를 들어야 우린 안심이 된단다!……" 노모는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⁵⁸⁾

초기의 이주자는 단방향적인 이주자로, 이주 후에는 출발지를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도 극히 드물었고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편리해지고 저렴해진 교통·통신 수단 덕분에 가족 혹은 개인의 이상 추구를 목적으로 선택한 이주 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작품 속 초국적 가정은 상황에 따라 출발지로의 정기적 방문, 친지 방문,

57) “我女兒告訴我，她一個同學，兩兄妹獨自在溫哥華，煮晚飯時，常常一邊做，一邊聽著長途電話，讓身在台灣的媽媽教她如何炒菜，如何燒湯！” Alice忍不住苦笑。“最可憐還是生病的時候，他們把藥櫃的成藥全倒出來，不知道該吃什麼藥。最後，又得打長途電話求救啦！”(陳浩泉，《尋找伊甸園》，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100)

58) “建忠嗎？昨天怎麼沒打電話來呀！”是媽媽的聲音。“昨天公司裏有活動，回來晚了，所以想今天才打給你們。”聽到是家裏的長途電話，建忠睡意全消了。“你一星期才來一次電話，怎麼忙也得記住啊！知道嗎？沒聽到你的聲音，我們擔心呢！……”老母親又開始嘮叨了。(陳浩泉，《租妻記》，《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4.9.)

친족 의무 등을 수행하면서 초국적 가정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국적 가정은 일시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더 활발해진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⁵⁹⁾ 또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주지에서 출발지로 역이주한 후, 마지막에는 좋은 환경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 다시 이주지로 역이주하는 '기러기 가족' 형태의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적인 가정은 가족 공동체가 한 가정 안에서 가족적 삶을 함께하는 것이라 한다면, 초국적 가정은 국민·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 때에 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연한 형태를 보인다. 즉, 초국적 가정은 유연한 전략으로 인해 일시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늙었지만 늙지 못한〉, 〈스쳐가는 인연〉, 〈빌린 아내〉, 〈일평생의 행운〉,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을 통해 초국적 가정의 일시적인 해체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양후이의 가정, Alice의 가정,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의 화인 가정의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영어 교육이나 시민권 획득이라는 문화적 자본을 최대한 축적하고, 부모는 출발지에서 쌓아둔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축적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우링 가정과 〈일평생의 행운〉, 〈빌린 아내〉, 〈늙었지만 늙지 못한〉에 등장하는 초국적 가정은 출발지에 남겨진 가족과 이주지에서 생활하는 이주자의 상황으로 일시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 이들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출발지에 남겨진 가족들과 가족적 삶을 이어간다.

이상에서 천하오취안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초국적 가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초국적 가정이 가지는 특징을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주자는 단일 혹은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정체성의 개념마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혹은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전통적인 시대에는 고정되고 견고한 특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⁶⁰⁾ 반면, 1990년대 이후 이주

59) 윤영도, 〈신자유주의 시대 중국계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의 형성과 변천 - 밴쿠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8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4.3, 183-215쪽. 참고.

60) 고희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참고.

자의 이주 형태와 이주 목적의 변화로 생겨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는 여권상의 국적과 관계없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지금처럼 초국적 이주가 활발하고 다변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자는 출발지에서 형성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이주지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주를 통해 얻은 문화적·경제적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들은 국적을 일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21세기형 유목민적인 정서와 사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⁶¹⁾ 초국적 가정의 이주자는 과거와 같이 하나의 단일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에서 주인공 형제인 Jack과 Jimmy는 서로 부모님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복형제다. 홍콩 출신 화인 부자와 타이완 본성 출신의 화인 모자가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결합하여 재구성된 가정이 탄생했다. Jack과 Jimmy는 이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자 캐나다 이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출신지가 다른 부모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고, 홍콩 방언과 타이완 방언 그리고 캐나다 영어까지 여러 종류의 언어를 섞어 쓴다.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초국적 가정이 나타나는 천하오취안 작품 속 이주자들은, 출발지와 이주지의 삶에서 형성된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새로운 형태의 신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두루 활용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오늘날의 이런 새로운 이주자들을 꼭 집어서 어떤 국가나 종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⁶²⁾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캐나다가 경유지가 되어 새로운 국가에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으며 출발지를 떠나 다른 국가(혹은 지역)에서 생활하더라도 출발지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통해 탈경계화시대에 따라 이주에 대해 의식이 변화한 1990년대 이후의 이주자의 다양한 모습과 이들의 이주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따른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등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천하오취안의 작품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화인 가정을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성된 초국적 가정을 볼 수 있었다. 초국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또는 전체가 상황에 따라 출발지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현재의 이주지가 경유지가 되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근거한 정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61)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62)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일종의 움직임은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⁶³⁾ 이들은 그들이 가진 자원과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개인의 자유의지와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 화인 이주자인 천하오취안의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었던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와 초국적 가정의 탄생은 비단 캐나다 화인 이주자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천하오취안의 작품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라는 범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의식과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단순히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집단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형 유목민적 정서와 사고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주지가 경유지가 되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 집단, 그리고 이들의 의식과 삶의 묘사된다는 점은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인화문문학은 중국 문학이나 캐나다 내의 소수민족문학이 아닌 그들 자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63)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제5장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으로서 陳浩泉 소설의 의의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으로서 천하오취안의 소설은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그가 작품 속에서 재현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로서 1990년대 이래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이주 동기와 현실, 이주자 가정의 다양한 양태, 초국적 가정의 형성이다.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등장하는 1990년대 이래 이주자를 바탕으로 이주 동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이주자와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의 차이를 발견했다. 초기의 이주는 피동적·수동적인 형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 화인작가인 장링의 장편소설 《골드마운틴》 속 주인공과 같이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화인 이주자는 육체노동 위주의 이주자로 캐나다에 이주하는 등 노동 및 생계형 이주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천하오취안의 작품 속 1990년대 이래 화인 이주자를 통해 이주 동기가 변화된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작중인물은 출발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녀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화인 이주자다. 또한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우링과 〈햇빛과 꽃모종〉의 양광, 〈늙었지만 늙지 못한〉의 웨이방, 〈빌린 아내〉의 젠중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로 전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더 넓은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화인 이주자다. 이처럼 1990년대 이래의 화인 이주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가 주를 이루며, 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초국적 이주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들은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로 개인 혹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이주를 선택하는 이상 추구형 이주자로 볼 수 있다.

천하오취안의 소설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화인 이주자의 현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나는 소설에 나타난 이주자들을 이주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이주자와 이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자로 분류하고 그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위단이는 이주 현실에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이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주지의 삶에 적응했다. 그는 이주 전부터 이주를 인생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인물이다. 반면, 《에덴동산을 찾아서》, 〈스쳐가는 인연〉, 〈햇빛과 꽃모종〉에 등장하는 이주자들이 이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에서 변화된 거주 환경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이주자의 심리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늪이었지만 늪지 못한>의 작중인물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이주 사회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이주자의 법률적 신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에덴동산을 찾아서》, <새장 안의 화미조> 속 이주자가 이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주했다가 이주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 신분의 한계, 이주 사회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도 잘 묘사되어 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와 <빌린 아내> 속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서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언어의 장벽, 이주 사회의 부당한 처우, 백인 사회의 예상과 다른 분위기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일평생의 행운>, <상씨의 성명학>, <안녕 왕자> 속 이주자가 출발지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이주지에의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로 가치관 충돌과 동요를 경험하거나, <양귀비> 속 이주자가 출발지에서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정체성과 새로운 이주 사회에서 형성된 정체성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험도 이주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는 확인 이주자 개인에서부터 이주 가정에까지 고찰의 범위를 확장시켜 작품 속 이주 가정의 다양한 모습을 통상적인 가정, 위기의 가정, 해체된 가정, 재구성된 가정으로 분류하고 그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에덴동산을 찾아서》 속 위단이의 가정은 이주 현실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이주로 인한 낮설고 변화된 환경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통상적인 가정이다. <양귀비>, <햇빛과 꽃모종> 속 이주 가정은 변화된 이주지에서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위기를 겪는다. 《에덴동산을 찾아서》, <스쳐가는 인연> 속 이주 가정은 이주 후 경제적·상황적인 이유로 가족이 격리되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되었다. 《에덴동산을 찾아서》 속 양후이의 가정과 Alice의 가정은 '기러기 가족' 현상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이다. 또한 <일평생의 행운> 속 이주 가정은 변화된 거주지에서 문화적 차이로 해체된다. <늪이었지만 늪지 못한>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해체된 가정이 등장한다.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과 <나는 너를 보았다>에는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재혼으로 재구성된 가족이 나타났다. 소설에서 나타난 이주 가정의 변화와 양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가정을 발견했다.

초국적 가정은 국제 이주의 증가로 가족이 하나의 국민국가의 범위가 아닌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족적 삶을 지속한다. 1990년대 이래 변화된 이주자의 이주 형태와 이주 목적으로 인해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가 대량 증가했고, 이는 초국적 가정의 탄생을 야기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이주지의 언어와 문화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이주자의 의식 변화는 초

국적 가정의 탄생을 도왔다. 무엇보다 출발지에서의 신분, 학연, 지연 등과 같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 후에도 출발지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초국적 가정을 형성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천하오취안의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 초국적 가정은 이주 후에도 교통·통신을 통해 계속해서 출발지와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개인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상을 좇아 이주한 이들도 이주 후 개인과 가족의 이익이나 필요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일시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 가족 구성원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며 초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⁶⁴⁾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나타난 초국적 가정을 통해 기존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주를 통해 얻은 문화적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21세기형 유목민의 정서와 사고를 가진 사람이자 국적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국민·국가의 범주에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집단이다. 이처럼 과거와 같이 하나의 단일한 혹은 혼종적 정체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다른 차원의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초국적 가정의 구성원들은 동태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들은 출발지를 떠나 이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이주지를 경유지로 삼아 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초국적 가정의 이주자가 어느 한 국가나 종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992년 캐나다 이주로 천하오취안은 신분의 정체성 변화, 심리적 변화, 사고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의 화인 이주자를 소설을 통해 표현했다. 나는 1990년대 이래의 이주자 모습을 보여주는 천하오취안의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무엇보다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특히 천하오취안의 소설에서 표현된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초국적 가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들의 문화 의식 그리고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문화 형태는 특정한 종족이나 국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변적이면서 또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인간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⁶⁵⁾ 그러므로 캐나다 화인 이주자의 삶과 그

64)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제92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1. pp. 121-148.

65)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 77-116.

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소설을 통해 발견한 초국적 가정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새로운 인류 집단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천하오취안의 소설은 화인 이주자의 이주 현실이 그대로 묘사되다보니 이주 현실의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의 소설 중에도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위단리와 같은 이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인물이 있다. 이 소설은 화인 이주자로서 이주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천하오취안 자신의 이주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우침과 사고를 바탕으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에덴동산을 찾아서》속 위단리를 통해 작가가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이주 태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작가와 작중 인물의 유사한 이주 경험과 이주 태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⁶⁶⁾ 위단리는 천하오취안이 캐나다에서 이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천하오취안의 이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잘 녹여낸 인물로 보인다.

천하오취안이 위단리를 통해 이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이상적인 이주자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 것으로 볼 때 이 소설은 상당히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덴동산을 찾아서》는 소설이고 작품의 특성상 허구적인 요소도 많다. 하지만 천하오취안의 신분과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이주 사회와 인물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천하오취안은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홍콩에서 캐나다로 재이주했다. 그는 현재의 거주지가 캐나다라고 해서 자신이 과거에 홍콩인이었고 중국 대륙 출신이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천하오취안에게 국가는 출발지이자 경유지 혹은 이주지일 뿐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어디에 있건 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주인공 위단리는 많은 부분에서 작가 천하오취안의 모습을 반영한다.

66) 천하오취안의 인터뷰와 《에덴동산을 찾아서》의 위단리의 대사를 통해 이들의 이주 경험과 이주 태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화교 집안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10대에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내 마음속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요. 뭐 크게 놀랄 일인가요? 그냥 태평양 저쪽에서 태평양 이쪽으로 이사하는 느낌이에요. 남들은 이민이라고 하지만 저는 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해요.” (青洋, 〈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 《香港文學》 第328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2.4, pp. 12-18.)

조부 때부터 계속해서 해외를 떠돌아다녔으니, 지금도 이사를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 또 한 번의 방랑일 뿐인 것이다.(陳浩泉, 《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p.21)

천하오취안은 자신과 가족이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에서의 삶을 목표로 캐나다로 이주했다. 전 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주가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이주와 이주자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캐나다 이주 사회에서 화인 이주자 신분으로 직접 경험하고 주변 화인 이주자의 사건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인 이주자의 다양한 삶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 그의 작품 속 인물의 대다수는 화인 이주자로 국한되고,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 또한 캐나다 화인 이주 사회, 이주 가정 등으로 한정되는 면이 있었다. 캐나다 화인 화문작가들의 초기작품을 살펴보면 캐나다에 막 이주한 초기 이주자가 경험한 차별과 멸시, 고향으로의 회귀, 상실의 문제, 정체성 혼란과 같은 문제를 강조하고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작가들은 화인 이주자라는 신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캐나다 문화 속 한 개체로 인정받고자 했으며, 이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주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서서히 이주지의 주류사회로 들어가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의식 변화는 캐나다 화인화문작가의 작품 소재에서도 드러난다. 거이판의 <가족애(親情)>, 리엔(李彥)의 <진귀한 들꽃(異草閑花)>, 장링의 <리처드슨 순경(警探理查遜)>, 차오샤오리(曹小莉)의 <자동차 판매왕 에드워드 슈미트 씨(賣車大王愛德華史密特先生)> 등과 같이 화인 이주자와 백인이 함께 등장하는 작품도 적지 않다. 이처럼 많은 화인작가들이 작품 소재에 다변화를 꾀하고 화인 이주자가 캐나다 사회에 융합되면서 그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나아가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 혹은 혼종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류후이친(劉慧琴)⁶⁷⁾의 <단풍길 굽이굽이(楓回路轉)>⁶⁸⁾와 <누가 종을 울리나(是誰敲響了喪鐘)>⁶⁹⁾를 비교했을 때 화인 이주자의 사고와 의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류후이친의 이주 후 초기 작품인 <단풍길 굽이굽이>에는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죽는 순간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인 이주자의 모습이 표현된다. 그러나 <누가 종을 울리나>에는 이주지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화인 이주자라는 신분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작가의 의식 변화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캐나다 백인 가정의 군대 이야기로 화인 이주자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작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연관 지어

67) 류후이친은 중국 대륙 출신으로 1977년에 캐나다로 이주했다. 캐나다 이주 후, 밴쿠버 중화문화센터 이사 및 캐나다화예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캐나다화예작가협회 및 다화작가협회 고문이자 칼럼니스트이다.

68) <단풍길 굽이굽이>는 2003년에 출간된 陳浩泉편집의 《白雪紅楓：加華作家品選二集》에 수록된 단편소설이다.

69) <누가 종을 울리나>는 2009년에 출간된 린팅팅(林婷婷), 류후이친 편집의 《漂鳥：加拿大華文女作家選集》에 수록된 단편소설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류후이친의 화인 이주라라는 신분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주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자신의 작품 속 인물의 변화와 확장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2019년을 기준으로 천하오취안이 캐나다로 이주한 지 어느덧 27년이 흘렀지만 그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스스로를 화인 이주자로 구분 짓고 그 테두리 안에 머무는 느낌이 든다. 작품의 소재에도 미미하더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화인화문문학은 단일한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집단을 표현하는 문학으로 다뤄질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의 틈새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간 집단과 그들의 의식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인화문문학은 새로운 인류 집단으로서 이주자 집단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용에서부터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종의 변화를 거듭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어쩌면 문학 자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화인화문문학은 주류문학에 충격을 주고 세계문학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면서, 문학 자체를 바꾸어 놓을 만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⁷⁰⁾ 화인화문문학을 중국현대대문학의 종속물 내지 부속물이라는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화인화문문학을 단순히 중화민족주의적인 사고로 중국인 또는 한족 또는 중화민족과의 관련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된 의식과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류 집단과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볼 수 있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이 강조된다.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으로서 천하오취안의 소설에 표현된 화인 이주자는 초국적 이주자 집단의 일원이다. 초국적 이주자 집단은 어느 한 국가나 종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인류 집단으로, 앞으로 초국적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출현과 확산은 삶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화인화문문학의 연구, 더 나아가서 초국적 이주자문학의 연구는 더욱 주목받아야 마땅하다.

70)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 77-116.

【참고문헌】

1. 작품

천하오취안 외 지음, 김혜준 외 옮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서울: 지식은만드는지식, 2016.

장링, 박명애 옮김, 《골드마운틴》, 서울: 금토, 2010.

陳浩泉, 《尋找伊甸園》,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陳浩泉, 《家在溫哥華》,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19.

陳浩泉, 《泉音》,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15.

陳浩泉, 〈I saw you〉, 《香港文學》第354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4.6, p. 32.

陳浩泉, 〈鳥籠裏的畫眉〉, 《明報》副刊「明藝」版 (香港), 2014.11.8.

陳浩泉, 〈吾老, 不被「老」〉, 《香港作家》第4期, 香港: 香港作家聯會, 2010.7, pp. 25-27.

陳浩泉, 〈霧水情緣〉,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02.26./03.05.

陳浩泉, 〈向家的姓名學〉,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7.9.

陳浩泉, 〈陽光與花苗〉,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4.23.

陳浩泉, 〈一生好運〉,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3.12.

陳浩泉, 〈罌粟花〉,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6.25.

陳浩泉, 〈再見王子〉, 《香港文學》第354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4.6, p. 32.

陳浩泉, 〈租妻記〉, 《都市報》副刊 (加拿大), 2010.4.9.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華作家品選》,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pp. 171-223.

陳浩泉 主編, 《白雪紅楓: 加華作家品選二集》,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 pp. 113-180.

陳浩泉 主編, 《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 Burnaby, B.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林婷婷, 劉慧琴, 《漂鳥: 加拿大華文女作家選集》, 台灣: 台灣商務印書館, 2009.

2. 단행본

-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인천: 화약고, 2007.
陳涵平, 《北美新華文文學》,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2006.

3. 논문

-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년 7월, pp. 193-220.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 77-116.
-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제8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7.4, pp. 329-357.
-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7.1, pp. 73-105.
-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제92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1, pp. 121-148.
- 고혜림, 〈글로벌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중국학논총》 제56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7, pp. 217-246.
-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pp. 323-339.
- 김경학, 〈피지계 인도인의 초국가적 성격〉, 《인도연구》, 2-10, 한국인도학회, 2005, pp. 1-42.
-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8.12, pp.

144-181.

- 김민정, 〈다문화가족의 탈영토화와 초국가적 네트워크 특성〉,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생활과학회, 2013, pp. 421-436.
- 김흥구, 〈초국가주의적 현상 속 재태한인〉,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19, pp. 205-245.
-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 32권 제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p.304-331.
- 송주연,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과정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제2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1, pp.79-112.
- 안병삼,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3호, 한국동북아학회, 2009, pp.153-177.
- 윤영도, 〈신자유주의 시대 중국계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의 형성과 변천 - 밴쿠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8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4.3, pp. 183-215.
-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 28호, 재외한인학회, 2012.10, pp. 7-47
- 이민경, 김경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계적 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2, pp. 179-209.
- 전형권,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17, 한국동북아학회, 2012, pp. 283-310.
- 최병두, 〈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 - 네트워크와 이상블라주〉,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08, pp.156-204.
- 畢文秀, 〈從後移民看華文書寫〉, 《중국현대문학》 제85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8, pp.73-96.
- 陳才, 〈從生存到生活——加拿大華裔文學主題的嬗變〉, 《名作欣賞》 2012年21期, 太原: 山西出版傳媒集團有限責任公司, 2012, pp. 08-10.
- 陳浩泉, 〈加拿大華文傳媒與加華文學〉, 《世界華文文學論壇》 2010年02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0.02, pp. 11-15.
- 呂曉琳, 〈美國華人小說中的雙重他者性與文化身份認同 : 以近期移居派華人華文小說與華人英文小說爲中心〉,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青洋,〈文學是他的伊甸園－陳浩泉訪談錄〉,《香港文學》第328期,香港:香港文學出版社, 2012.4, pp. 12-18.

趙慶慶,〈泉音潺湲出胸壑－專訪加拿大華裔作家協會陳浩泉會長〉,《文學評論》第57期,北京:中國社會科學院, 2018.11, pp. 86-94.



加拿大華人華文作家陳浩泉小說中的跨國華人移居者現狀

崔賀景

釜山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中文摘要

伴隨著全球化的潮流，21世紀的人們生活在跨國移居頻繁的時代。隨著跨國移民潮流的擴散，學界對“脫離自己領土的民族”的關心也逐漸增加。其中，華人群體在移居者群體中具有比較悠久的歷史，在規模方面也受到世界關注。伴隨華人移居者的增加，描寫移民過程中所經歷的悲歡離合的生活，以及對混亂的認同感的文學研究也有所增加。

本論文以加拿大華人華文作家陳浩泉的作品為基礎，分析了90年代以後移居者移居的動機和目的，移居社會中移居者經歷的各種移居現實，移居後給家庭帶來的變化現狀等。更對陳浩泉作品中出現的21世紀型跨國移居者和跨國家庭的形成表現出了關注。

陳浩泉出身於華僑家庭，有兩次移居經驗，先從中國大陸移居香港，再從香港移居加拿大。1992年移居加拿大後，他本人作為移居者，結合移居加拿大生活的經驗，並根據周邊華人移居者的事件和傳聞創作了講述加拿大華人移居者生活的作品。我在分析陳浩泉作品中出現的1990年代後移居者的移居動機的過程中，發現了20世紀中期以前的早期移居者和21世紀型跨國移居者的移居動機不同。

張翎的《金山》中出現了20世紀中期以前的華人移居者。如果說初期移居者是為了維持生計，以體力勞動為主的生計型移居者的話，21世紀的跨國移居者以追求個人和家人的理想為目的，形成了理想追求型移居形態。也就是說，20世紀中期以前的初期移居者是被動的體力勞動者，而21世紀型的跨國移居者是帶著能動的主動的態度選擇移居。

陳浩泉的小說中出現的大部分華人移居者是以追求理想為目的移居。小說中華人移居者中有在移居社會中即使有困難也能夠順利克服的移居者，也有因為面臨移居現實問題而難以適應的移居者。華人移居者在移居現實中遇到困難的原因可歸結為居住地的變化造成移居者的不穩定情緒、經濟條件、法律身份的不穩定性、移居者的態度、價值觀衝突和認同感混亂等。陳浩泉的作品，很好地體現出了多樣的華人移居家庭。通過小說中出現的家庭及其

成員，觀察出移居地這個新環境和移居社會的經濟變化等各種外在因素對移居者個人的價值觀和情緒，以及與現實妥協或順應等生活的態度所產生的影響。

在陳浩泉的小說中出現了大量的21世紀型的跨國移居者和跨國家庭。跨國家庭是指由於國際移居的增加，家庭不再因情況和需要而停留在一個國民國家的範疇，而是跨越兩個以上的國家邊界繼續維持家庭生活。20世紀90年代以來移居者的移居形式和移居動機的變化促進了21世紀型的跨國移居者的出現，並由此形成了跨國家庭。20世紀中期以前的早期移居者很少在移居後返回出發地。相反，21世紀型的跨國移居者是根據需要自由地跨越邊界。

他們利用跨國網絡，根據個人和家庭的情況可以隨時返回出發地，也可以把移居地作為經由地，再轉移到新的居住地。也就是說，21世紀型的跨國移居者是移居後以交通和通訊手段等為基礎，繼續保持著與出發地的聯系。他們以跨國網絡為基礎，不管護照上的國籍如何，隨時根據情況跨越國家間的邊界，形成了多重認同感。陳浩泉通過作品展示的華人移居者是當今一個超越民族和國家的新人類群體，是21世紀型跨國移居者的一部分。作為加拿大華人華文文學，陳浩泉的作品無法用一個國家或特定地區所依據的認同感來解釋，而是表現了國家體制夾縫中重新崛起的人類群體，以及他們的各種生活面貌，意識和文化。

他們不是處在出發地的延伸線上，而是與移居地的新文化相融合，產生出新的人類群體，以及新文化。今後，將誕生超越現有的界限和常識的新文化，這種可能性和潛力非常大。因此，需要對這種體現21世紀型跨國移居者現象的華人華文文學進行持續關注和研究。伴隨著全球化的潮流，21世紀的人們生活在跨國移居頻繁的時代。

감사의 글

부산대학교 석사 과정에 진학한 이후 학위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다. 석사 과정 중에 첫 수업이었던 김혜준 선생님의 화인화문문학연구는 내가 논문의 주제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 중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경험했던 나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화인의 이주자 신분과 그들의 정서를 보다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석사 논문이 나오기까지 나를 지도해준 김혜준 선생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 논문을 처음 써보는 나에게 선생님은 논문 쓰는 과정을 건축 과정과 순서에 비유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다. 특히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분야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내가 구체적으로 한 작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은 캐나다 화인화문학과 중국대륙 문학과의 관계라든지, 초국적 이주자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셨다. 선생님은 학문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함께 해주셨다. 선생님은 논문 쓰는 과정을 터널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하고 논문의 형상을 히말라야에 비유하기도 하셨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가슴 속 깊이 박힌 조언인, 논문은 지난 석사 과정 동안의 내 존재의 이유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더러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이러한 도움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을 마지막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김혜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선생님 덕분에 캐나다 화인작가인 천하오취안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천하오취안은 내게 출판된 자신의 작품들을 우편으로 부쳐주셨고 미출판된 작품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주셨다. 또한 내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구하라고 하셨다. 천하오취안이 보내준 작품을 통해 1990년대 이래 다양한 모습의 초국적 이주자와 가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 멤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畢文秀 선생님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연구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송주란 선생님은 학기 중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해서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呂曉琳 선생님과 梁楠 선생님은 작품과 논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문희정 선생님은 논문의 기술적인 서술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또한 늘 밝은 에너지를 줬던 고민경 선생님,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이자 언니로 동지애를 느끼게 해준 안소민 선생님, 이 모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석사 학위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석사 과정은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감사드린다.

2020.07.08. 최하경.

